

미국은 청교도에 의하여 기초가 되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에 기초하여 세워진 나라임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도 신앙을 개종하여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시편 33장 12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7월 5일 (토) 제 1490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미국을 미국답게...기도하는 미국으로

'2014 독립기념일 맞아 건국의 아버지들이 말하는 미 건국 의미 조명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국경일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 기념일은 1776년 7월 4일,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에서 대륙의회가 독립선언문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독립 선언문은 독립 국가가 되기 위한 미국 식민지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강력한 성명서다. 독립기념일에는 1941년 법정 공휴일로 선언된 이후, 해마다 축하행사가 전국적으로 벌어진다. 미

국의 건국이념을 다시 새겨보는 이날,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자유와 독립을 축하하기 위해 각지에서 피크닉, 가두행진 및 연주회, 화려한 불꽃놀이 행사 등의 기념축제로 뜻 깊은 하루를 보낸다. 따라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말하는 신앙과 독립기념일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 바로 독립기념일의 진정한 의미를 존중하는 것이 된다.

"미국인에게 누가 당신의 주인이요 라고 물으면, 그들은 주인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통치자도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건국된 미국은 세계 최초로 귀족 평민이 없는,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가 됐다. 미국 건국을 기점으로 전 세계의 전제왕정이 한 단계 한 단계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전 세계 민족은 수천 년간 동족간의 노예제도를 고수해왔으나 미국은 자국민의 피를 흘려 타민족을 노예제도에서 해방시켰다. 그 이후 전 세계에 노예제도가 폐지됐다.

결국 1884년 7월 4일, 미국 국민들은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거대한 선물을 받았다. 바로 미국의 상징이 된 자유의 상이다. 비록 10년 늦었지만,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제작한 자유의 상은 미국과 프랑스 국민들 간의 친목을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인들의 모금 운동으로 증정됐으며,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1884년 임시 완성돼 200여개의 조각으로 분해된 뒤 프랑스 해군 수송선을 통해 미국으로 수송됐다. 그 후 2년 뒤인 1886년, 미국 뉴욕에서 완공됐다.

결국 미국인들이 누리는 자유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을 세운 조상들의 피로써 얻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밤하늘에 펼쳐지는 불꽃놀이나 BBQ만 즐길 것이 아니다.

(3면으로 계속)

제 2대 대통령 존 아담스(John Adams)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국부들이 독립을 성취한 기반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은 미국 역사상 가장 의미심장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오는 세대들에게 큰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미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건국자들의 신앙이 필요하다.

아담스는 이 독립선언이 선포된 바로 그날, 미국 독립의 깊은 의미를 다음과 같이 감동적으로 표현했다. "우리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위대한 구원을 얻었다."

아담스는 미국의 독립 기념일이 기독교적 축제의 날이 될 것으로 믿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날이며, 국민들은 그 분께 헌신을 결단한 날이다. 이와 같은 미국 독립의 초석은 건국을 주도한 국부들의 신앙이었다.

독립에 기여했던 존 퀴incy 아담스(John Quincy Adams) 역시 1987

년 그가 69세가 되던 해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왜 미국인들은 독립 기념일을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중요하게 기념합니까? 미국의 탄생은 구세주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탄생은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비약적인 진보를 이루는 시점이 됐습니다. 미국의 독립 선언문은 구세주가 명령하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언약이었으며, 사상 최초로 기독교 원리에 의거한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미국이 대영제국으로부터 완전

히 결별을 선언한 미국의 독립선언문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이 매듭지어졌다. "[대영제국과 결별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할 것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신성한 명을 걸고 이에 서약합니다."

이처럼 신생 국가의 분위기가 하나님의 세우신 "국가"라는 이념이 팽창할 대로 팽창해지자, 독립전쟁 당시 대영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된 당 시 관료는 그의 서신에서 국왕에게 다음과 같이 그 상황을 전달했다:



2면

책임 있는 독립적 시민으로 양성한다!



3면

질문과 경청 통해 숨은 보석 캐내라!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16면

우크라이나 아이기들
오금옥 선교사(아틀란타 롬한인교회)

미국 대통령은 항상 크리스천이었다!

투표권, 대통령후보 신앙에 대한 미국인들 설문조사 결과 밝혀

미국 대선에서는 항상 대선후보들의 신앙이 쟁점이 돼왔다. 그만큼 미국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최근 실시된 투표권 리서치의 설문조사 결과 역시 이 점을 심분 반영하고 있다. 53%의 미국인들은 아직까지 무신론자를 대통령으로 지지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Americans are somewhat more open to the idea of an atheist president).

미국 사회는 아직까지 무신론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적이 없다. 공식적인 어떤 교단이나 교회에 속하지 않은 존슨(Andrew Johnson) 대통령 이후, 모든 대통령은 기독교 교회(카톨릭 포함)에 속한 신자였을 정도로 미국 대통령들은 신앙의 사람들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과거처럼, 미국인들이 특정한 교단에 속하지 않고 다양한 교단이나 교회에 속해 더이상 "와스프(WASP)" 즉 백인 앵글로-색슨 개신교도(White Anglo-Saxon Protestant)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지는 않지만, 미국인들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대통령 후보에게는 관심이 없다. 24%에 속한 이 부류의 미국인들이 무신론자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 후보의 신앙이 대선가도에서 그다지 커다란 장애물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즉 프랑스(President Francois Hollande), 벨기에(Prime Minister Elio Di Rupo) 그리고 체코공화국(President Milos Zeman)이 무신론자다. 또한 칠레(President Michelle Bachelet), 대한민국(박근혜 대통령), 뉴질랜드(Prime Minister John Key)에서는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들이 대통령이나 총리로 국정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The Religious Affiliations of U.S. Presidents

Episcopalian	Presbyterian	Baptist	Methodist	Unitarian
George H. W. Bush	Ronald Reagan	Bill Clinton	George W. Bush	William H. Taft
Gerald R. Ford	Dwight D. Eisenhower	Jimmy Carter	Woodrow Wilson	William F. Pittman
Franklin D. Roosevelt	Stephen A. Aikin	Benjamin Harrison	Henry S. Truman	Richard B. Cheney
Franklin Pierce	Grover Cleveland	James Buchanan	Warren G. Harding	Elizabeth B. Hayes
Zachary Taylor	James K. Polk	Andrew Jackson	Ulysses S. Grant	John Quincy Adams
John Tyler	William H. Harrison	James Monroe	James Madison	John Adams
George Washington				

Disciples of Christ	Dutch Reformed	Quaker	Catholic	Congregationalist
Lyndon B. Johnson	Theodore Roosevelt	Richard M. Nixon	John F. Kennedy	Calvin Coolidge
James A. Garfield	Martin Van Buren	Herbert Hoover		

United Church of Christ	No Formal Affiliation
Barack Obama*	Andrew Johnson
	Abraham Lincoln
	Thomas Jefferson

Sources: Ronald Reagan: The Ronald Reagan Presidential Foundation and Library. All other presidents: Miller Center of Public Affairs, University of Virginia.
* Governor Cleveland served two non-consecutive terms as the 22nd and 24th president. He is only listed once in this chart.
* President Barack Obama was a member of Trinity United Church of Christ in Chicago for more than 20 years before resigning his membership in 2008. A recent New York Times article reported that Obama chose not to become a member of a specific church in Washington, D.C.

PEW RESEARCH CENTER

www.rptse.com

동부개혁신학교 신학교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신학교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4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서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4년 9월 5일(금) 오후6시
- 3 입학시험 : 2014년 9월 6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강부흥회 : 2014년 9월 8일(월) - 10일(수) 저녁 8시
- 5 문의처 : Admission Office

학감 / 교무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동부개혁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시론

사슴나무골 텃밭 이야기(6): 사랑만 남습니다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기독교와 교회의 역사 2000년은 서양사와 세계사의 역사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와 국가, 민족과 온 세계를 향한 그 영향력이었습니다. 기독교로 말미암아 남녀의 차별, 계급의 차별, 인종의 차별이 무너지거나 감소하였고, 민주주의와 정의의 구현에 촉진조차 할 수 없는 공헌을 한 게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어도 사회적 약자들을 돕거나 돌보는 고아원, 양로원, 및 자선 의료 기관의 설립, 등 사회봉사를 거의 주도해왔습니다.

그렇던 기독교의 위상과 평판이 이제는 국민들과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해가면서 그 숭고한 영향력을 급속히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노출된 구원파와 같은 사이비 이단 종파의 모습들은 불신자들의 기독교에 대한 불신만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신뢰를 잃고 분열되어 있는 것은 비단 정부와 정계만이 아닌 듯합니다. 나라와 민족 전체가 타류에 휩싸여 표류하고 있습니다. 교계도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어 언쟁만 거듭하지만, 어느 쪽도 대다수 성도들과 국민들의 진심 어린 성원도 존경도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나라도 교회도 진정한 리더십의 상실과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비판과 자책에만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가 더한 위험과 역경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소수의 신실한 무리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큰 각성과 회개, 부흥과 개혁을 이끌어 내셨던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노아 한 사람의 순종은 전 세계가 홍수로 심판을 받으며 전 인류가 멸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인류가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타락한 이방 문화 속에서 우상을 만들며 생계를 이어가던 아브라함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갈 때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소명을 감당합니다. 양치기 소년으로 집안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던 다윗은 사무엘 선지의 뒤를 이어 기름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목자왕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당대 최고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바울을 사용하셨고, 어거스틴을 쓰셨으며, 루터와 칼빈, 존 나스와 조나단 에드워드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오셨습니다. 그 역사의 수레바퀴는 오늘날도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 뒤에는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압니다. 왜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진노 가운데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밖에 달리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4:8)고 했고, 아울러 사도 바울은, "공휴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엡2:4, 5)라고 분명히 말씀 속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니다.

이 사랑은 더 이상 강단에서만 선포되거나 교실에서만 가르쳐지는 화병 속의 꽃과 같은 전시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이 아버지의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전파되며 세상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조건도 없고, 계산도 없으며, 오히려 이 사랑 때문에 손해도 보고, 희생도 감수하며, 마음까지 아파해야 하는 어쩌면 어리석어 보이는 헌신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랑을 말로만, 교리만 떠들며 거룩의 옷을 입고 지내 온 제 자신을 보면서도, 하나님과 수많은 동역자들,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그 사랑으로 용서받기를 간구해 봅니다.

책임 있는 독립적 시민으로 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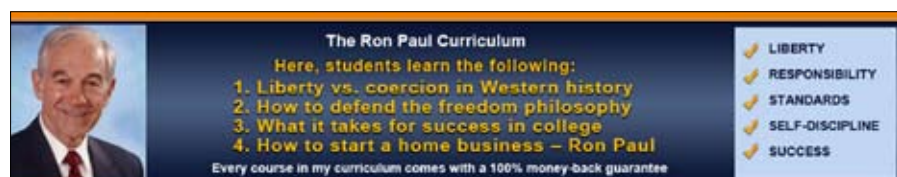
론폴커리큘럼닷컴, 기독교적 홈스쿨교육 통전적 체계 제시

미국 전 국회의원이자 대통령후보경력을 가진 의사, 저자, 정치가인 론 폴(Ron Paul)은 나머지 여생을 모두 홈스쿨 지원과 장려에 헌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2년 11월 국회의원 사직 연설에서 그는 여생을 청년교육에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의 교육 사업의 주축이 홈스쿨 확대운동이다. 특별히 청년층으로부터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론 폴 박사는 청년층 교육은 홈스쿨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다음 세대 교육이 없는 교육은 1세대로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청년층이 결혼해 가정을 이루면 홈스쿨을 통해 그들의 신념과 사상을 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www.ronpaulcurriculum.com).

론 폴은 특별히 홈스쿨 운동이 성경적인 정부 회복을 위한 "혁명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가 중점을 두고 있는 성경적인 정부란 정부를 최소 규모로 제한해 최소한의 권세를 부여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국민이 정부를 감시하지 않으면 돈과 군사력을 소유한 정부는 점점 비대해지고 권세를 확대해 국민의 자치권과 자유를 서서히 잠식해 들어간다. 이러한 소규모 정부론은 론 폴을 비롯해 대다수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이 지지하는 사상이다.

론의 홈스쿨 커리큘럼은 특별히 일반 학교에서 소홀히 하거나 다루지 않는 주제와 과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학력 면에서도 수준이 높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도록 고안됐다. 유치원에서 5학년까지의 과정은 무료로 제공된다. 6학년 이후는 1년에 250달러를 내면 된다(학기 중

리큘럼으로 공부한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으로 공부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후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기술이나 경영인을 찾아서 인턴사원으로 일하게 된다. 그 과정을 마치면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갖추게 된다. 론 폴의 커리큘럼은 고등학교를



따라서 론 폴의 홈스쿨 커리큘럼은 다음의 4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1. (남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고 개인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성경적 원리를 배운다. 이 원리는 자유시장경제의 기초가 된 원리이다.

빠진 책이다. 결국 학생이 유치원에서 12년에 이르는 이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다음과 같은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론은 예상한다:

- 1. 공식 석상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연설할 수 있다.
2. 글을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

성경적인 작은 정부를 회복하기 위한 혁명적인 요소
자립능력·상품과 재화 창출, 사회기여 생산성 추구

언제라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전액을 환불해준다). 커리큘럼은 동영상과 온라인 파일, 그리고 정기적인 시험과 작문 숙제로 구성되었다. 단, 이 커리큘럼은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강조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도움을 주거나 정답을 가르쳐주지는 않는다. 다만 1년에 250달러를 내면 학생과 부모들이 서로서로 묻고 대답하며 의견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포럼에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할 때, 그는 포럼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만큼 이 커리큘럼은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모든 커리큘럼은 2015년에 완성될 계획이다.

고등학교 커리큘럼에 포함된 과정의 한 예를 들면, 홈오피스 설치하기, 지시 받은 대로 작업하기, 책 서평 쓰기 등이 있다. 이 홈스쿨 커

리큘럼으로 공부한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으로 공부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후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기술이나 경영인을 찾아서 인턴사원으로 일하게 된다. 그 과정을 마치면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갖추게 된다. 론 폴의 커리큘럼은 고등학교를

- 2. 어떻게 자유가 억압받고, 탄생하고, 박탈의 위기에 놓였는지, 자유의 흐름에 관한 상세한 역사를 배운다.
3. 사유재산권, 자유 시장경제,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정부의 간섭 최소화하는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사상을 자세히 배운다.
4. 높은 지적 수준을 추구하며, 교과서가 아닌 일반 책으로 공부한다. 교과서는 교과서위원회에 의해 내용을 철사, 재편성함으로써 저자의 중요한 관점이 삭제된 알맹이

- 다.
3.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운영할 수 있다.
4.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 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5. 수학을 대수와 통계학 수준까지 이해할 수 있다.
6. 지질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의 기본을 이해할 수 있다.
7. 홈비즈니스를 창업할 수 있다.
8.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옹호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춘다. (3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L.A. and N.Y. offices and a subscription offer.

Large advertisement for Midwest University, featuring the university name, founding year (1986), website (www.midwest.edu), and a list of degree programs (ESL, Bachelor, Master, Doctoral) and study options (On Campus, On-Line, Blended).

질문과 경청 통해 숨은 보석 캐내라!

커피브레이크닷컴, 효과적 성경공부 인도 위한 성경발견학습법 소개

커피브레이크(coffee break)는 지난 1970년 미국 시카고 인근 평화교회(Peace Church)에서 시작된 제자양육과 전도를 위한 성경공부다. 따라서 CRC(미국개혁장로교회) 주도로, 현재 세계적으로 55개 교단에서 커피브레이크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소그룹 사역자들에게 효과적인 성경공부 인도를 위한 성경발견학습법을 습득시켜 불신자 전도와 양육을 돕게 된다.

커피브레이크 전문가들은 소그룹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자세와 상황 대처법에 대한 노하우를 제시한다. 소그룹을 인도하다보면 인도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면하게 될 때가 있다. 다시 말해서, 멤버들이 예습을 해오지 않거나, 질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거나, 토론이 주제에서 빗나가거나, 말 많은 사람이 토론 시간을 독점하는 등 소그룹을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해도 흐름이 깨질 때, 소그룹 인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제시해준다.

1. 소그룹 멤버들을 위해 충분히 기도하라!

소그룹의 목적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능력이다. 인도자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스스로 예습할 시간을 확보해준다. 예습하면 도움이 되는 점을 설명하도록 하되 멤버가 사전에 준비를 못했다면 소그룹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토론을 하다가 본문에서 빗나가는 경우도 있다. 성경에 대해 궁금증이 많거나 다른 곳에 관심이 가는 멤버들로 인해 흐름이 자꾸

에서는 쉐 운동, 큐티 나눔 등이 활발해지면서 소그룹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예배와 소그룹이 상호 작용하면서 영성이 개발되

소망 칼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망교회)

세상에 잘난 사람도 많고 지혜로운 자도 많지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사울은 출중한 외모를 갖추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그를 버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행13:21-22).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처럼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겸허한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신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 어느 시골에 사는 여학생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링컨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훌륭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문제가 있어요. 아저씨는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턱은 주걱턱이고, 눈은 너무 움푹 들어갔어요. 게다가 광대뼈는 왜 그렇게 뾰족 튀어나왔어요? 우리 동네 어른들은 아저씨가 너무 못생겨 싫대요.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저의 소원을 적어 보냅니다. 저의 소원은 링컨 아저씨가 지금부터 양 볼과 턱에 수염을 길러서 흉한 얼굴 모습으로 바꾸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녀의 편지를 다 읽은 링컨은 "그렇지, 옳은 충고야"라고 하며 빙긋 웃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당장 수염을 길렀다. 링컨은 이렇게 어린 학생의 충고를 받아 들었다. 이것이 겸허한 마음을 가진 자의 모양이다. 잘난 척, 아는 척 하지 않고 남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드리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링컨은 결국 큰 인물이 되었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생명을 걸고 싸워 승리하였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다. 겸허함은 신앙의 기본이다.

둘째, 다윗은 믿음과 인내의 사람이다. 그는 사울왕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 온갖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였지만 끝내 사울을 왕으로 존중하고 거역하거나 해하지 않았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계속 추격하고 있어도 결코 대항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였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린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인내로 그것들을 이겨냈기 때문이다.

셋째, 다윗은 부모님께 효도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엡6:1-3). 지금도 우리 겨레의 가슴속 깊이 살아 숨쉬고 있는 이순신 장군은 용맹과 지혜가 뛰어난 명장으로서 효성과 인정도 남달랐던 분이시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 중에 진중보국(盡忠報國)에 여념이 없는 중에도 항상 홀어머니의 안부를 여쭙기에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쟁 중에 어머니 돌아가시자 장군은 "난중일기(亂中日記)"에 이렇게 적었다. "뛰쳐나가 날 뿔나 하늘이 캄캄하며, 애통함을 어찌 다 적을 수 있으랴" 그 유명한 명량해전(鳴梁海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여 상복을 벗지 않고 거친 음식을 고집하였다고 한다. 이순신 장군은 참으로 효성이 뛰어났고, 남달리 인정이 많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데에도 남의 귀감이 되었다. 다윗 왕도 군인으로서 용맹과 지략이 뛰어난 장군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충성심이 뛰어난 사람이며 부하들에 대한 사랑도 남달랐다.

성도는 겸손한 만큼 은혜 받고 참고 고통과 시련을 견디는 만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만큼 복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행복하다.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과 인내로 시련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란다.

멤버위한 충분한 기도. 예습 안해도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질문 후 최소 10초 기다려. 교재내용 숙지, 결길 질문 본문으로

가 멤버들을 설득시켜 변화시키기 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멤버들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성경책이나 기도실 벽에 멤버들의 사진을 붙여놓고 기도한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기도하다보면 충분히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2. 멤버들이 성경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한다.

초기에 모든 멤버들이 예습해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성경 본문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성경공부를 시키는 마음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다. 처음에는 예습해오지 않던 멤버들이

3. 멤버들이 목상하고 생각할 시간을 준다.

질문을 던져도 멤버들이 잘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침묵이 흐르면 인도자의 마음은 성급해진다. 그러나 이 시간에 멤버들의 표정을 잘 살피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관찰해본다. 본문을 살피며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질문을 던진 후, 최소한 10초의 여유를 준다. 그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멤버들의 입을 열어주실 것이다.

4. 교재 내용을 충분히 숙고하라.

다른 길로 쉐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인도자가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인도자가 교재내용을 숙지해서 멤버들을 본문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때 본문과 관련된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면서 인도하도록 한다.

본문에서 빗나간 것을 지적하고 수정하려고 하면, 다음부터는 멤버들이 정말 궁금해 하는 의문이나 문제가 생겨도 말을 안하게 된다. 언제나 질문할 수 있도록 하되 성경공부 시간에는 말씀과 교재에 집중하고, 성경공부가 끝난 후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의문을 풀어주도록 한다.

결론으로, 오늘날 교회공동체 안

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왜 소그룹인가?" 긴밀하고 지속적인 유대관계에 대한 소망함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나의 지체된 자들로 서로 나누고 싶은 속 이야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그룹의 기능을 잘 살리기 위해 리더들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바로 리더는 거미가 거미줄을 늘여뜨리듯 질문을 뽑아내, 그룹원이 스스로 그 줄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좋은 리더는 질문과 경청을 통해 숨은 보석을 캐내는 사람이다. 간단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질문과 경청의 기술'로 소그룹 구성원들을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구비시켜나가야 한다.

미국을 미국답게...

(1면에서 계속)

우리에게 일반적인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7월 4일에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미국은 이러한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는 지, 크리스천들은 생각해봐야 한다. 동성결혼을 합헌으로 인정하고, 태아의 고통을 무시하고 낙태를 시행하는

세상이 돼가고 있다. 대학교를 비롯한 학원이 본래 설립된 취지를 망각하고 있다. 기독교 정신으로 출발한 학원이 그 정신을 망각하고 무신론과 세속화에 빠져 있다. 따라서 최고의 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독립기념일이 돼야 할 것이다. (편집부)

(2면에서 계속)

9. 자유경쟁 시장경제, 자유무역, 정부 간섭 최소화를 이해할 수 있다.

10. 책이 역사적 발전에, 역사적 발전이 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11. 미국 역사, 미국 헌법을 이해하고, 어떻게 헌법이 침해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12. 기독교가 서방세계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할 수

있다. 학생은 서구 문명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서구 문명이 이룩해낸 자유가 어떻게 탄생해 어떻게 박탈됐으며 어떻게 그것이 회복될 것인가를 배운다(서방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탄생된 배경). 전 세계로 확산했다는 점에서 서방세계의 역사를 배울 때 현대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자본주의의 뿌리를 배우는 것이다.

축

쉐퍼드대학교 학생모집

“축” 쉐퍼드대학교 WASC인준

WASC인? 미 서부 지역 대학 협회(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로서 UCLA, 스탠포드, UC버클리, USC 등 미국 서부 명문 대학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쉐퍼드대학교는 이번 WASC인준(Candidacy)을 통해 이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교무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은 WASC회원 학교로 미국 일반 명문대학으로의 편입·진학이 가능한 대학입니다.

쉐퍼드대학교는 WASC 뿐만 아니라 ACICS 및 ATS를 통해 미국 연방정부 고등교육 인증협회(CHEA)에 등록된 학교입니다.

동시 통역 강의

미연방정부 학비 지원

1 오르티즈 박사 영성 강의

- 과목명: 목회자 영성과 교회 성장
- Certificate과정 청강가능

후배 목회자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가장 소중한 강의. 제자도, 영성, 교회성장의 핵심 강의
저서: <제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인간 그 심령의 절규>

2 찰스 크래프트 박사 치유 강의

- 과목명: 내적 치유
- Certificate과정 청강가능

그는 정통 장로교 목사출신 선교사였으나 선교지에서 영적 전쟁을 체험하고, 이후에 영적전쟁, 내적치유, 문화 인류학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영적, 문화적 혼돈 속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강력한 영적 분별력과 권세로 세우시길 알고 싶으신가요?
저서: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 <두 시간의 내적 치유 기적>

3 다양한 프로그램

- 한국어 신학사, 목회학 석사, 목회학 박사과정
- MDiv. English Program (목회학 석사 영어과정)

4 다양한 혜택

- 목사 안수, 여목사 안수, 음악목사 안수
- 미주류 신학 대학들과 학점 교류
- 미군 군복 가능
- 기타 다양한 장학금 혜택(목회자, 목회자 자녀, 가족, 성직, 근로 장학금 등)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원로 학장

찰스 크래프트 박사

BABS (신학 학사)	127 학점
M.Div (목회학 석사)	97 학점
D.Min (목회학 박사)	42 학점

SHEPHERD UNIVERSITY

3200 N. San Fernando Rd., Los Angeles, CA 90065 / info@shepherduniversity.edu / www.shepherduniversity.edu

SEVIS I-20발행 상담 및 입학문의
323-550-8888
Ext.8231 (크리스탈 김)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다시 기본으로...

2014년 제20회 브라질 월드컵이 6월 12일에 시작됐습니다. 세계인의 시선이 모두 브라질을 향하여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처음 출전하여 헝가리에 9:0, 터키에 7:0으로 대패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 후 2002년이 될 때까지 4회를 더 출전하지만 단 한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이 대한민국의 축구역사였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결정되었을 때에, 대한민국은 거스 히딩크를 감독으로 영입합니다. 그는 지휘봉을 잡은 지 1년6개월 만

에 48년 동안 단 한 번의 승리도 거두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축구를 단번에 본선 4강에 올려놓습니다. 예선에서 폴란드와 포르투갈을, 16강전에서 이탈리아를, 8강전에서 무적함대 스페인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4강까지 진출합니다.

그동안 히딩크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창피를 당하고 그는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히딩크의 비결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 강조였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실시된 평가전마다 그의 팀은 거의 매번 5대0으로 패했습니

다. 그래서 사람들은 히딩크에게 오대방(5:0)이라는 별명을 짓고 조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에게 최우선적으로 혹독하게 기본기를 훈련시켰습니다.

한국에 다시 대형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어른들의 무책임과 무능력으로 빚어진 사고이기에 아직도 온 국민이 분노와 허탈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은 이번 사고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고도의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은 기초가 부실한 대형건물처럼 여겨지기에서 어이없이 무너지는

고통스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말한다면, '신뢰'입니다. 좌우와 간에, 노사 간에, 여야 간에, 세대 간에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신뢰'라는 기초 없이는 어떤 사회도 오래 건널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돌아가야 할 기본은 무엇일까요?....

푸 / 른 / 초 / 장

장성춘 목사
(안암제일교회 원로)



많은 수고를 하는가. 그러나 수고 보다는 귀엽고 예쁘기만 하다. 가정주부가 식구들의 뒷바라지가 하기 싫어진다. 그 이유는 사랑이 식었다는 위험 신호다. 사랑 없는 수고는 원망, 불평, 짜증만 날 뿐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낳지 않고 시장에서 만든 것을 사다 기르게 했다. 그 자식에게 무슨 애정이 있겠는가. 그 아기는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만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간 엄마의 피를 받고 엄마의 영양분을 빼앗아 먹고 자라다가 힘들어 낳았기 때문에 내 생명처럼 사랑스럽고 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결대 현재의 고난은 잠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고난의 세상에 살지만 미래의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4. 주를 본받는 교회였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6절).

평범하게 보통사람으로 살기란 쉬워도 남이 본받게 살기란 힘이 드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려와 평생 잘 존경했다는 얘기가 있다.

5. 소문난 교회였음을 감사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8절).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은 더 빨리 퍼진다. 노태우 "잔돌이", 김옥숙 "잔순이" 오래전 국민일보 기사에 보니 S여대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부인을 포함한 "장자추진위원 발기인대회"가 열렸다. 그런데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는 150만원을 내고 수천만원 내는 사람도 있었는데 김옥숙 씨는 한 푼도 안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 단체모임에 항상 언어만 먹었다. 총북음성 꽃동네(장애자 마을)에 회비를 천원 작정했다는 것이다. 수천원을 품고 앉아 있으면서 요즘 거지도 천원을 주면 적다고 안 받아 가는 세상인데 우리 교인들은 제발 잔돌이, 잔순이가 되지 말자.

물질이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옮겨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교회도 좀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 교역자들의 세계에선 연말이 되면 어느 교회는 짜다스니 어느 교회는 후하다스니 하는 소문이 짝 퍼진다. 데살로니가교회는 좋은 소문이 퍼졌다. 그래서 바울의 칭찬을 받았다.

데살로니가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본받게 교회가 되었고 좋은 소문이 퍼져나갔다. 소문이 잘 나면 교회가 멀어도 몰려올 것이다. 우리 교회는 모범적인 인상을 가진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노력하자.

바울의 감사와 기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2-8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농사를 짓기가 힘이 들지만 그 농작물이 받아되어 자라고 결실하여 수확할 때면 그 기쁨은 무엇과도 비길 수 없다. 나는 농사에 질린 사람이다. 어릴 때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남의 밭의 소득이 절반도 안 되는 고역을 겪으면서 자랐다. 그런데 내 아내의 집 구석구석 공터만 있으면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가꾼다. 파, 무, 꽃, 감나무, 대추나무 어릴 적에 힘든 일은 안 해 보고 농사의 낭만만을 겪고 나온 탓이겠지. 지금도 주차장 모퉁이에서 뽑아 김치를 담근 무공해 식

품을 먹고 있다.

예수님도 복을 전하는 일은 농사짓는 일에 비유하고 있고(마 13:18-23), 바울도 복을 전하는 것을 농사짓는 데 비유하고 있다(고전 3:6-9). 바울은 여러 교회를 세웠다. 그중 데살로니가 교회가 맺은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감사했다. "

장이 멈춰 있기 때문이다. 혹시나 신앙의 열이 식어 죽은 신앙이 아닌지 반성해 보자. ②살이 굳어진다. 심장이 멈춰서 피가 순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식으면서 굳어진다. 내 신앙은 지금 냉랭하게 식어서 굳어져 버린 신앙은 아닌지 반성해 보자.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이라고 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감사할 특징은 무엇인가.

1.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였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3절). 믿음은 역사를 따라야 한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고 했다. 죽은 신앙은 죽은 열매를 맺는다. 요즘 기독교가 많이 부패했다는 소리를 듣는다. 정치계, 학계, 그 어느 곳을 가도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다. 죽은 생명은 행동하지 못한다. 사람도 죽으면 ①열이 식는다. 심

③굳어진 신앙은 썩는다. 썩은 시체는 냄새가 난다. 우리들의 신앙이 불신자들에게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할 것이다.

④썩고 나면 살이 없어지고 뼈만 남는다. 교회도 사랑이 식어지고 봉사도 멈추어 뼈대만 앙상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국 교회는 불과 100년밖에 안 되지만 벌써 성인병 같은 병을 앓고 있다.

⑤교회는 오래 되었어도 신앙만은 젊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 늙고 병든 교회는 아닌지 진단해 봐야 할 것이다.

2.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였다

"사랑의 수고와..."(3절) 사랑하면 수고가 수고스럽지 않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얼마나

여운 것이다.

교회란 하나님(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것이다.

3.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3절).

믿음은 과거에 근거하고 사랑은 현재에 일하고 소망은 미래에 연결된다. 우리의 신앙은 미래의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망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예수 믿는 고난이 따르지만 잘 참고 견디는 것은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인들과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였다(고전 4:16; 빌 3:17).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했다(고전 11:1). 우리는 후손들에게 본을 보여주며 살아야 하겠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같이 젊은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를 보고 배운다.

한 농가에 늙은 할머니가 있었다. 고려장을 시키기 위해 아들이 지계를 지고 산으로 갔다.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내려놓고 지계를 내버리고 돌아서려니가 손자 녀석이 그 지계를 갖고 내려오려고 했다. "너 그것 무엇에 쓰려느냐"고 아버지가 묻자 "아버지도 늙으면 지계가 있어야 내다 버릴 것 아니겠어요" 했다. 이 아들은 가슴이 철렁해서 그 노모를 다시 지고 내

Azusa Pacific University

2014년 가을학기 학생 모집 및 프로그램 설명회

학교소개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는 1899년에 설립된 기독교 대학교로서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U.S. News & World Report로부터 미국의 최고학교 중 하나로, The Princeton Review로부터는 미서부의 가장 좋은 학교 중 하나라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사 대학교는 WASC와 ATS에서의 정회원입니다.

아시아 프로그램 (영어 & 한국어 동시통역 수강)

아시아 프로그램은 아주사 신학대학원의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서 수강할 수 있고, 영어와 한국어의 이중언어로 수업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지도자로 헌신할 졸업생을 배출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융합하여 학문적인 우수성과 실제적인 사역의 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문적인 교수진, 그리고 아주사 대학의 자랑인 각 클래스당 소규모의 정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Master Degree Program (석사과정)
Master of Arts in Pastoral Studies
Master of Divinity (목회학 석사)
- Doctoral Degree Program (박사과정)
Doctor of Ministry (목회학 박사)

프로그램 설명회

- 일시: 2014년 7월 14일 오후 6시
- 장소: 아주사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3580 Wilshire Blvd. Ste. 200 Los Angeles, CA 90010
(Ardmore Avenue쪽으로 오셔서 Paramount Plaza visitor parking 을 하시면 Validation 해 드립니다.)

- 2014년 가을학기로 등록하는 첫 3명의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의 20% 를 장학금으로 주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간단한 저녁 식사가 제공됩니다.
- 참석하실 분은 전화 (626) 857-2200 이나 email: aher@apu.edu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ZUSA PACIFIC UNIVERSITY

losangeles@apu.edu

www.apu.edu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십대를 겨냥한 변태 성교육!

미국의 공립학교는 지난 6년 사이 너무 많은 정치적 어젠다(친동성애, 친이슬람, 친낙태, 반기독교)로 인해 더 이상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가르쳐 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더더욱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공립 학교들이 학교 수업시간과 행사 때마다 자주 초청하고 있는 미국의 최대 낙태시술소인 Planned Parenthood(PP)에서 올해 들어 새로 만들어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치명적인 해

를 통해서 성적 만족과 희열을 느끼는 것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한글사전에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위인 “변태”라고 적혀있는 것입니다.

CSN 뉴스에서는 지난 2월 중순경 PP에게 왜 이런 동영상 특별히 십대를 대상으로 홍보하는지 물었더니, PP는 “십대를 위한 페이지를 따로 만들게 된 것은 이미 성관계에 노출되고 성관계가 활발한 십대들에게 그들의 성생활을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을 마련해주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성적 자료들을 제공 하는 것에 헌신하기 위함이다”

을 통해서 성적 만족과 희열을 느끼는 것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한글사전에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위인 “변태”라고 적혀있는 것입니다.

CSN 뉴스에서는 지난 2월 중순경 PP에게 왜 이런 동영상 특별히 십대를 대상으로 홍보하는지 물었더니, PP는 “십대를 위한 페이지를 따로 만들게 된 것은 이미 성관계에 노출되고 성관계가 활발한 십대들에게 그들의 성생활을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을 마련해주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성적 자료들을 제공 하는 것에 헌신하기 위함이다”

이 여성은 이런 성관계(즉 변태적인 성관계)를 할 때 5가지의 법칙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변태적인 성관계를 홍보하고 장려하는데, 그 5가지 법칙은 그저 십대아이들이 듣기 좋게, 즉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미묘하게 십대아이들의 마음을 약하게 조종하는 참으로 사악한 것들이었습니다.

위험한 라시 그린의 성교육

이 여성은 이런 변태적 성관계를 하나의 상처치유로까지 끌고 갑니다. 또한 변태적 성관계

낙태 최다 시술소 PP에서 “Naked Notion” 동영상 제작 홍보나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 갖지 않는 변태성...PP측 치유, 신뢰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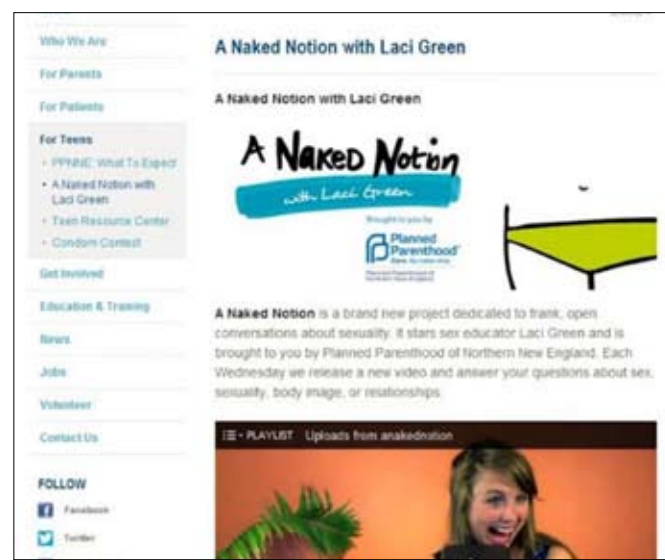
(danger)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동북부에 있는 뉴잉글랜드 낙태 시술소 PP에서는 정부에서 받은 자금 중 275만 달러를 사용해서 십대들을 겨냥한 “A Naked Notion”이라는 “성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였는데, 우리말로 의역을 하자면 “적나라한 성적 개념 또는 알몸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PP의 홈페이지 중 “십대 페이지”에 등장한 지 한 달도 안되어 페이스북에서는 수천, 유튜브에서는 백만을 훨씬 넘는 십대들이 클릭했습니다.

낙태 최다 시술소에서 이제는 십대들에게 “변태”적인 성교육까지 하고 있는 황당스런 상황입니다.

A Naked Notion 동영상은 어떤 내용인가?

A Naked Notion 동영상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정상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폭력적이고 한마디로 모든 “변태적”인 성 관계를 미화시킨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이러한 변태적 성관계가 마치 정상적이고 즐거운 성관계중 하나인 것처럼 장려하고 홍보하고 있습니



더 짜릿하고 만족스런 성관계를 형성하며, 무엇보다 서로 간에 깊은 신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라고요.

영어로는 Bondage & Sado-masochism이라고 하고 줄임말로 BDSM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가학피학증 성애 또는 변태”라고 번역합니다.

영어사전 해석에 의하면 ‘성적으로 서로가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어떤 심한 아픔과 고통을 주면서 그 상대방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라고 대답했습니다.

동영상 진행자 라시 그린은 이런 변태적인 성행위를 “성관계 안에서 이뤄지는 학대”로 절대 잘못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성관계는 “서로의 동의에 의해 이런 성관계를 하면 짜릿할 만큼의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오히려 자신 없었던 성관계도 치유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성관계가 된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칭 “성교육” 프로라는 23세

를 통해 지금 십대아이들이 가장 찾고자 하는 인간관계의 “신뢰”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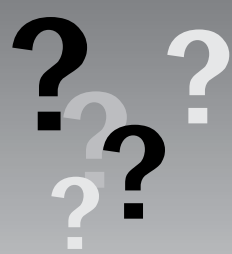
서로가 변태적 성관계를 하자고 “agree”하고 이런 성관계를 가지면 오히려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호기심 많은 어린 십대아이들에게는 한번쯤 이러한 것들을 시도해보고 싶게 만들고, 이미 성관계를 해본 20대 청년아이들에게는 믿지 특별하고, 자극적인 새로운 성관계로서 재미삼아서라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충분한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들과 교회가 자녀들에게 성경적 성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먼저 올바른 성교육에 대해 알아야 하고 교회에서 또한 올바른 성교육을 성경적 차원에서 교육해야 합니다. 성교육 자료나 강의가 필요한 교회나 또는 성도들은 TVNEXT@g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1spc0316@gmail.com

Q: 한국 교회가 많이 소속되어 있는 PCUSA 교단이 동성애 결혼에 대해 성경에 어긋난 총회적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토랜스에서 양 권사

A: 좋은 질문입니다. PCUSA 교단은 한국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해 한국을 영적으로 위기에서 구한 너무나 고마운 장로교단입니다. 그리고 이 교단은 미국 최대 장로교단이며 한국 교회도 많이 이 교단에 소속이 되어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목사들은 대부분이 보수적이어서 교단의 동성애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PCUSA교단은 과거와는 달리 신학의 칼라가 변해 교단 내에 진보적인 세력들이 교단의 주축이 되어 기독교가 강조하는 성경의 절대적인 원칙을 포기했습니다.

PCUSA교단은 동성애를 금하는 성경의 주장보다 이 시대가 점점 동성결혼을 점점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가니 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것과 같은 결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슬픈 일이요 비극적인 결정입니다.

PCUSA교단은 지난 6월 19-21일 미시간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제221차 총회에서 동성애자 결혼을 정식으로 허락한다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1)그래서 교단규례서(book of order)에 결혼이란 정의를 한 남성과 여성사이 (Between a woman and a man)에서 두 사람사이 (Between two people)로 바

동성결혼 허락은 세상 눈치보며 죄와 타협한 것

꾸자는 안이 찬성 429대 반대 175로 통과되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에서 성은 어떠한지 두 사람이 결혼하면 된다는 결정입니다.

2)PCUSA목회자가 동성애자(게이와 레즈비언)의 결혼을 법이 허용하는 19개 주내에서 집례 할 수 있다고 통과했습니다. PCUSA는 성공회(Episcopal Church), 복음주의루터교회(ELCA), 연합그리스도의교회(UCC)와 같이 동성애자를 교회에서 결혼 주례할 수 있는 4번째 교단이 되었습니다.

3)2010년 총회에서는 동성애자도 목사와 직분자(장로, 안수집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개혁자들이 강조한 것처럼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모든 것의 심판자이며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서라는데 서로 가라는 데까지 갑니다.

교회가 성경에 기초하여 세워졌는데 교회가 성경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성경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그 집단은 유사 기독교 집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PCUSA교단의 결정은 한마디로 기독교 이단적인 결정입니다. 그 뒤에는 사탄이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의 눈치를 볼 것이냐 아니면 시대적인 흐름에 눈치를 볼 것이냐? 결국 PCUSA교단은 성경을 버리고 시대적인 문화 흐름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참말을 살고 있는 교회는 올바른 교단에 소속되어야 하며 바른 목회자 밑에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말을 전하는 목회자는 바른 소리 바른 나팔을 불어야 하며 교인들에게 신앙적인 방향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비성경적인 결정을 한 이 교단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죄와 타협해 어두움과 타협해 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성경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데 이 세상의 문화조류에 따라가며 눈치를 보며 죄와 타협해버린 것입니다.

유년부 전도사님 청빙

Seeking Sunday school JDSN

- 자격: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분
2세나 영어에 능숙하신 분
(Fluent in English)
- 봉사: Sunday only(주일 1번)
- 급료: 능력에 따라 우대함
- 문의: 310)749-0577
*주위에 좋은 분이 계시면 추천을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 이정현 목사

3521 Lomita Bl#202-A
Torrance CA.90505



담임목사 청빙

미국 동남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주도 콜럼비아에 위치한 콜럼비아 한인 연합 장로교회(PCUSA)는 39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 300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함께 섬기실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MIF#: 23308.AB0)

자격

- 현재 PCUSA 교단 소속 또는 가입이 가능한 분
- 정규 신학 대학원 이상 (M. Div.)
-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 이중언어(한/영)에 불편이 없으신 분
- 이민 목회 경력 7년 이상 (부목사 경력 포함)

제출서류

- 한글 이력서 1부 (사진 포함)
- PCUSA PIF 양식 (pcusa.org)
- 본인 및 가족 소개서 (가족사진 포함)
- 목회비전, 소견서 및 신앙고백서
- 신학교 졸업증명서
- 목사안수 증명서
- 추천서 3명
- 최근 6개월 설교 동영상 2편 (CD/DVD 또는 동영상 주소)

제출

- 도착마감: 2014년 8월 11일
- 보내실곳:
우편: P.O Box 24113 Columbia SC 29224
Email: yhcchang@gmail.com

*제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해드리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1차 선정대상자에게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청빙위원장 장영학 장로 (704)491-8044 Email: yhcchang@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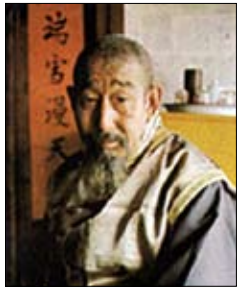


콜럼비아한인연합장로교회
KOREAN COMMUNITY PRESBYTERIAN CHURCH

1412 Richland St. Columbia, SC 29201 Tel (803) 765-2500 www.kepcsc.org

증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몽골의 다리강가(Dariganga)



몽골 기원의 소수 종족인 다리강 가족은 몽골의 동남쪽에 살고 있다. 주로 고비(Gobi) 사막 근처 화산 고원에 있는 사바타(Sbaatar) 지방의 남쪽 지역이다. 다리강가족은 동부 몽골족에 속해있으며, 여기에 칼카(Khalkha) 몽골, 부리아트

(Buryat), 그리고 대부분의 중국 몽골족도 들어간다. 언어는 할(Halh)어와 유사하며 몽골어의 사투리라고 설명된다. 그러나 모든 다리강가족은 할어를 사용해서 북 또는 중앙 아시아에 있는 다른 몽골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13세기에는 징기스칸(Genghis Khan)이 유목민인 몽골의 부족들을 모두 통일하면서 가장 큰 제국들 중의 하나를 형성했다. 한때 강력한 몽골제국은 점점 성장하는 러시아와 중국 제국 사이에서 압박을 받게 됐다. 1920년대 초부터 몽

골은 1990년 조용한 민주혁명이 있기까지 마시스트국가였다.

삶의 모습

대부분은 지금 도시에 살지만 아직도 다리강가 유목민들이 다수 남아있다. 가족들을 치기 위한 야영 전막에서 살면서 계절에 따라 동물들과 함께 이주한다. 숙소는 이동이 쉬운 거스(gers)나 유르트(yurts)다. 이 숙소는 밝게 채색된 나무문들이 달린 원형 펠트제 텐트다. 유목민들은 말, 소, 양들을 기르고 신선한 목초지를 찾아서 일년에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를 이동한다.

다리강가족의 일부는 현재 집단 농장에서 살면서 공장, 탄광, 운송의 일을 하고 있다.

몽골의 기후가 거칠기 때문에 다리강가족의 일상적인 음식은 주로

지방, 고기(주로 양고기), 우유, 그리고 목장제품으로 이뤄져있다. 많은 양의 지방과 양고기가 동절기에 소비되며 요구르트, 치즈, 신크림(sour cream) 등을 하절기에 먹는 다. 그들의 가장 즐겨 먹는 음료는 아이라그(airag) 또는 발효된 양나귀의 우유인 쿠미스(kumiss)다.

다리강가족은 전통적으로 매우 어릴 때 결혼을 한다. 소녀들은 보통 13-14세 그리고 소년들은 몇 살 더 많은 나이에 결혼을 한다. 현재는 보통 20대 또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고 금방 자녀를 갖고 있다. 대학교육을 받은 도시의 다리강가족은 20대 후반에 이를 때까지 결혼을 미루기도 한다. 몽골에서는 산아제한을 하지 않는다. 여섯 또는 더 많은 자녀를 갖는 가정은 오히려 재정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 다리강가족은 음악, 민속춤, 장

기(chess), 그리고 스포츠 행사를 즐겨한다. 매7월이 되면 고대 나담(Naadam)축제는 몽골 전체에 걸쳐 벌어진다. 스포츠 행사는 경마, 활쏘기, 그리고 레슬링이다.

신앙

다리강가족은 전통적으로 '샤머니즘'을 믿는다. 사람들은 마법에 의한 병 치료와 귀신들과의 대화를 원하거나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무당을 찾아가는다.

1500년대 후반 몽골에 티벳 불교가 전해졌으며 대부분의 몽골인은 당시 불교로 개종했다. 1900년까지 몽골인 남성의 60%가 불교 사원에서 수도승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에 의해 시작된 반종교 운동으로 말미암아 약 75%의 다리강가족은 종교가 없거나 무신론자가 됐다.

현재 다리강가족의 일부가 선조의 신앙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병을 고치고 점, 계시 그리고 점성술을 통해, 마귀를 진정시키기 위해 무당은 다시 초청을 받고 있다. 특히 장년층에서 불교와 무속신앙의 혼합이 살아있다. 오보스(Obos)(지역적인 영혼들이 거주한다고 믿는 돌무더기)가 아직도 대부분의 언덕 위에서 발견되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강간, 살인, 알코올중독 그리고 폭력이 현재 몽골의 도시 지역에 주된 문제거리다. 많은 젊은이들이 범죄조직에 가담하고 있다. 다리강가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오신 참된 평안을 발견할 수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페이스북 '좋아요' 누른 청년, 징역 6년형

이집트의 한 기독교 청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의 기독교 관련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고 기독교 박해 소식 전문 매체인 모닝스타뉴스가 25일 보도했다.



이집트 형사법원 하급 하니 판사는 지난 24일 신성 모독 혐의로 기소된 케로로스 쇼우키 아타올라(29)씨에게 "신의 계시를 깬다고 종파 간 갈등을 야기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타올라의 변호인은 "'좋아요'를 눌렀을 뿐, 의견을 남기지는 않았고 이슬람교인들의 공격을 받고 바로 취소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타올라를 지난달 말 아랍어 페이스북 페이지 '십자가의 기사들'을 보고 무심코 '좋아요'를 눌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웃 이슬람교인들은 그를 폭행했고 '아타올라를 쫓아내야 한다'는 전단을 동네에 뿌렸다. 경찰은 그러나 아타올라만 체포했다.

이집트 인권단체 '국경없는 국가의 사파르트' 사마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간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이집트 법원은 기독교인이 신성모독으로 고발됐을 때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이들이 납치되거나 죽었을 때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집트 인구의 90%는 이슬람교인이며 10%는 이집트정통교회인 콥트교회 소속 기독교인이다.

미 목사를 가정폭력 관련 설교 안에

절반에 가까운 미국 목사들이 자국내 만연한 가정폭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설문조사기관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최근 개신교 목사 1000명을 전화 설문했더니 42%가 '가정폭력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거나 아예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해당 주제에 대한 설교를 1년에 두서너 번 한다는 응



답과 1년에 한번정도 한다는 응답은 28%, 2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정폭력 관련 설교를 한달에 두서너 번 한다는 응답과 한달에 한번 정도한다는 응답은 각각 2%, 4%에 그쳤다.

목사 52%는 가정폭력을 주제로 설교하는데 있어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81%는 이와 관련해 더 많은 훈련을 받았더라면 가정폭력을 줄이는데 일조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83%는 가정폭력에 대한 설교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다고 개선 의지를 보였다.

목사의 72%는 '가정폭력이 지역사회의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74%는 가족과 친구, 교인이 가정폭력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우리 교회의 문제인가'라는 질문에는 25%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라이프웨이리서치는 "여전히 많은 목사들이 가정폭력을 우리 교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35.6%와 남성의 28.5%가 부부나 애인 등으로부터 강간과 폭력, 스토킹을 당했다.

이슬람교 개종거부 수단여성 사형수 석방

이슬람교로 개종을 거부해 사형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아기까지 출산한 수단 의 기독교인 메리암 이브라힘(27)이 23일 석방됐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브라힘의 변호인 모하네드 엘누어는 이브라힘이 이날 수단 카르툼의 항소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나 남편과 재회했다고 밝혔다. 엘누어는 "항소법원이 하급법원 판결을 뒤집고 그녀에게 석방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슬람교도인 아버지와 에티오피아 정교회 교인인 어머니가 헤어지자 이브라힘은 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했고, 미국 시민권자인 기독교인을 만나 결혼했다. 이브라힘은 기독교인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오래전 헤어진 오빠들이 자신을 배교 혐의로 고소했다. 타 종교로 개종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수단 이슬람법에 따라 이브라힘은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지난 2월

임신한 채 20개월 된 아들과 함께 교도소에 갇혔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온갖 고초를 마다하지 않은 여성에게 국제사회의 관심이 쏟아졌다. 유엔과 국제사면위원회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라며 수단 정부를 비난했고 미 하원의원과 남침례교단 등 미국 정·교계는 미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미국 법과 정의센터는 석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을 벌였다. 토니 블레어, 데이비드 캐머론 영국 전·현직 총리와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 등도 이브라힘의 석방을 촉구했다.

삼쌍둥이를, 용기·희망 주고 떠났다

중증 장애로 분류돼 의사조차 낙태를 권유하는 삼쌍둥이를 낳은 부모 사연이 해외에서 잇따라 소개됐다. 부모는 얼마나 살지 모르는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품에 안았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온라인매체 더블레이즈가 지난달 초 보도한 미국의 삼쌍둥이 형제 안테르스와 브로디는 태어난 날 하나님 품에 안겼다. 아버지 해럴드 샤프렌은 언론에 보낸 편지에서 "저와 내내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낙태 대신 아기를 낳기로 했다"며 "임부의 합병증이 우려됐지만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아내가 자랑스럽다"고 했다. 그는 "우리 천사들에게 '반가워'라고 처음 인사한 날 '잘 가라'고 작별인사를 해야 했다"면서 "하지만 아기와 보낸 몇 시간이 내겐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고 회상했다.

벧축의 아기가 심장이 하나뿐인 삼쌍둥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는 하나님을 탓하기도 했다. 그러나 샤프렌은 이내 '주시는 것도, 거두시는 것도 그분의 뜻'이라는 설리를 깨달았다.

샤프렌이 보내온 쌍둥이의 사진은 더블레이즈의 '최고의 순간들'로 선정됐다. 네티즌들은 털모자를 쓴 채 두 눈을 감고 강보에 싸인 아기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며 찬사를 보냈다.

삼쌍둥이 자매 믿음(Faith)과 희망(Hope)은 지난달 8일 호주 시드니에서 태어났다. 자매는 엄마 아빠 곁에서 20일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다. 두개골은 하나인 데 얼굴과 뇌가 두개인 희귀 삼쌍둥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일란성 쌍둥이가 불완전하게 분리된 안면중복기형(diprosopus)

쌍둥이는 이전에 34건이 학계에 보고됐지만 생존한 적이 없었다. 의사는 낙태를 권했다. 그러나 믿음·희망이 부모는 "단 하루를 살아도 괜찮다"며 쌍둥이를 지켰다.

탄생 자체가 기적이던 아이들이었다. 부모는 순간 순간마다 아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여느 부모들처럼 아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감격했다. '팔 바보'였던 아버지 시몬 후위는 지난 달 호주 월간지 '우먼스테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두 딸 자람에 여념이 없었다. "믿음이 더 많이 울어요. 희망이는 엄마를 좀 더 닮았는지 잠이 많고요. 믿음이 이가 소리 내 울며 희망이를 깨울 때도 있죠. 그럴 땐 희망이가 옆을 보면서 '깨워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는 거 같아요. 믿음이는 침으로 방울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손가락을 잘 빨아요. 희망이는 '노리게 젓꼭지'를 좋아합니다."

호주 언론들은 작은 천사들이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떠났다고 평가했다. 믿음·희망이 부모는 짧은 생을 살다간 자녀를 안타까워하기보다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었다"고 말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박상은 소장은 "임태하는 순간 온전한 생명체가 생기는 것"이라며 "그 생명의 시작과 끝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낙태를 거부하고 장애아를 낳아 기르는 부모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보코하람 추정세력, 여성 60여명 또 납치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최근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소녀들을 포함해 여성 60명 이상을 또 납치했다고 현지 한 관리가 24일 전했다.



이들 여성은 보코하람이 지난주 보르노주 담보아 지역의 한 마을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피랍됐다고 피란을 떠난 이 지역 거주민들이 전했다. 당시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적어도 30명 이상이 숨졌다.

수도 아부자에 있는 나이지리아 국방부는 23일 밤 트위트를 통해 "보르노주에서 소녀들이 피랍됐다는 몇몇 보고들을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본교 소개 및 특전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On Campus Courses

2014 가을학기 수업 안내

Sept 29-Oct 3(9월 29 -10 월3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6-10 (10월 6-10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 / 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 디자인)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Off-Campus Courses

Sydney, Australia

July 28-August 1 (7월 28일-8월 1일)
DI8180 Cross-Cultural Leadership Development / Dr. Bruce Dipple

Los Angeles, California

Sept 8-12 (9월 8일-12일)
IM 830 Islam/ Dr. Daniel Lute

Phnom Penh, Cambodia

Oct 27-31(10월 27일-31일)

Seoul, Korea

Nov 3-7(11월 3일-7일)
IM 830 Islam/ Dr. Todd Bradley

Online Courses (8주간 온라인 강의)

Aug 18-Oct 10 (8월 18일-10월 10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교차문화 의사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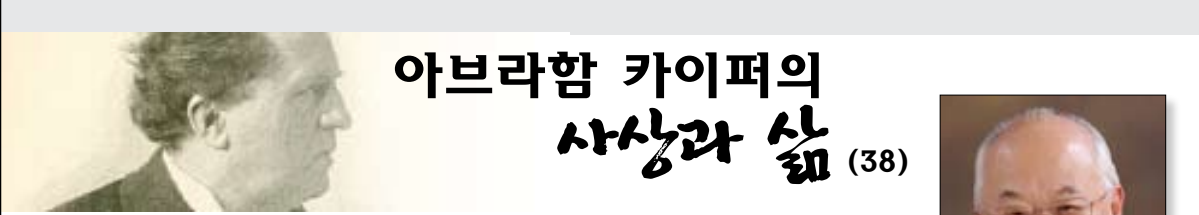
Oct 13-Dec 5 (10월 13일-12월 5일)

DI 8520 World Religions(세계종교)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38)

정성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종신대명예교수

천재적 저널리스트 카이퍼

카이퍼는 저널리스트이다. 특히 그는 주간지와 일간지의 편지주간과 주필로서 50년간 필봉을 휘두른 위대한 신문인이었다. 아마 인류 역사에 반세기를 두 신문사에서 매일 같이 논설을 쓰고 성경 명사록을 쓰며 각종 에세이를 씌어낸 사람은 카이퍼 밖에 없을 것이다. 카이퍼는 타고난 문필가였다. 신학, 정치, 역사, 문학, 교육, 예술 등에 방대한 지식을 갖고, 거기다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가졌으니 그의 글은 다함이 없는 끝없이 솟아나는 샘이요 웅장한 폭포수처럼 대중들에게 다가갔다.

실제로 카이퍼는 언론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너무나 잘 아는 언론인이었다. 그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였다. 카이퍼가 가진 위대한 꿈 즉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역주권사상과 일반은총을 구체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권은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지 못하면 불행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등

을 개혁하려고 했다. 그는 불을 튀기는 설교자였고, 청중을 휘어잡는 명연설가 이었으나 그의 사상은 주간지와 일간지에 여러 형태의 글로 써서 기독교정당의 지지자들을 확보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을 개혁하려고 했다. 그는 불을 튀기는 설교자였고, 청중을 휘어잡는 명연설가 이었으나 그의 사상은 주간지와 일간지에 여러 형태의 글로 써서 기독교정당의 지지자들을 확보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을

카이퍼는 당시 일어났던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고 16세기 요한 칼빈이 세웠던 개혁주의 신학으로 되돌려 놓으려던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깨워야 했다. 당시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수임명권을 갖고 자

가진 서민 대중들 속에 깊이 들어갔다. 또한 카이퍼는 신문의 사실을 통해서 기독교 정치의 기반을 쌓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신문의 논설과 각종의 글들을 통해서 계몽주의, 합리주의, 사회주의자들의 논리의 허구를 통쾌하게 비판하였다. 그리고 카이퍼의 사설, 성경묵상, 연설문과 출판된 책들은 거의 모두가 De Heraut지나 De Standard지에 일단 실렸던 글이 모아져서 소책자 또는 방대한 대작으로 출판되어 나왔다.

카이퍼는 당시 일어났던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고 16세기 요한 칼빈이 세웠던 개혁주의 신학으로 되돌려 놓으려던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깨워야 했다. 당시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수임명권을 갖고 자

사설 통해 기독교 정치의 기반 쌓고 정책 대안 제시 언론으로 국민 계도, 미래 예견 예언자적 역할 감당

우주의, 계몽주의, 진화론적 세계관을 노골적으로 가르쳤다. 그래서 개혁교회에 그의 신앙대로 자유롭게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수들에게 교육 받도록 해야 함으로 사립대학, 사립 중고등학교를 세워야 했다. 정치가 인본주의자의 손에 넘어 가면 모든 체제가 인본주의적인 사회가 됨으로, 칼빈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이퍼는 주간지와 일간지의 글을 통해서 영적 전사로 우뚝 서게 되었다.

카이퍼는 타고난 언론인

카이퍼는 다방면에 타고난 천재였다. 그런데 그는 특별히 화란문학의 귀재였다. 카이퍼가 라틴어 재학 시절에 그는 문학과 신학을 함께 공부하여 두 가지 학위를 얻었다. 그래서인가 카이퍼는 수사학(Rhetoric)을 깊이 있게 연구했다. 수사학은 말과 글을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학문이었다. 16세기 요한 칼빈도 수사학의 명수로서 매일 같이 글을 쏟아낸 것처럼, 카이퍼도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썼다.

거기다 카이퍼는 독서광이었다. 성경을 비롯해서 교부들의 책, 종교 개혁자들의 책, 교회사에 대한

책, 정치와 문학에 대한 책들을 다치는대로 읽었다. 독서를 너무해서 건강을 해칠 정도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카이퍼는 칼빈과 마찬가지로 언어학의 천재였다. 김나지움에서는 영어, 독일어, 불어를 배웠다. 화란문학은 경지에 이르렀고, 자유대학에서는 미학(美學)을 강의할 정도였다.

또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에 대해서는 도가 텅 났다. 그는 히브리어를 직접 가르치기도 했을 뿐 아니라 성경 고전어를 통해서 수많은 성경해석과 묵상자료, 그리고 교의

신학자료를 썼다. 더구나 라틴어는 모국어인 화란어보다 더 잘해서 25세에 라틴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요한 칼빈과 요한 라스코의 교회관에 대한 신학적 역사적 연구"를 라틴어로 쓸 정도였다. 그러므로 카이퍼는 신문인으로 이미 준비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카이퍼의 깊은 문학적 자질에,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쌓고, 그리고 뜨거운 열정과 부지런함이 어우러져서 반세기동안 지칠 줄 모르는 신문 글을 썼다. 카이퍼의 당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카이퍼가 했던 발자취를 따라 갈 수 없었다.

카이퍼에게 있어서는 설교자와 연설자, 신학교수, 정치인, 신문인 등의 직함들은 서로 서로 별개

아니라 그 모두가 서로 통합되어 한 목적을 향해서 움직였다. 즉 그의 정치적 입장은 신문의 논설을 통해서 끊임없이 국민들을 계몽했고, 반혁명의 지지 세력들을 규합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분명한 칼빈주의적인 입장에서 이를 논평하고 정리해서 나라의 갈 길을 제시했다. 말하자면 카이퍼는 언론인으로서 국민을 계도하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카이퍼의 칼빈주의적 정당도 그리고 일평생 기독교 정치가로

서의 투쟁과 승리도 칼빈주의적 신학의 수립도, 결국 그의 신문인으로서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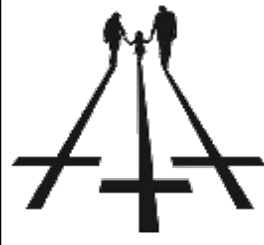
당대에 아무도 카이퍼와 필적할 만한 논객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저널리스트로서의 삶은 성공적이었다. 카이퍼의 문체는 하도 독특해서 사람들이 그의 글을 읽고 매혹되었다. 카이퍼는 말과 글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설득 시키는데 천재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카이퍼의 문체를 '카이퍼식'(Kuyperesque)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카이퍼는 모든 방면에 열정적이지만 특히 학문하는 것과 글 쓰는 것을 즐기면서 황홀해 하기도 했다. 카이퍼는 화란문학의 긴 시(詩)나 성경의 시편을 큰 소리로 암송하곤 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던지 지하실에서 천장까지 찌렁찌렁 울려 퍼질 정도였다. 사실 그 당시의 분위기로는 마치 그의 미래가 어둡고 문학 방면으로 진출하지 않겠다 할 정도였다.

카이퍼는 공부를 하되 효율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할 줄 알았다. 그는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고 규칙에 따라 일했고 결실결이는 활기찼다. 카이퍼는 보통 새벽 2시까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공부벌레였다. 바로 카이퍼의 언어학자로서 또는 문학적 직적 작업이 있었기에 그에게 있어서 신문 편집인 발행인으로서, 사설을 쓰는 주필로서 가장 적절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었다. 그는 천상 저널리스트였다.

(다음호에 계속)

가정사역 칼럼



His Needs, Her Needs! (남편의 필요, 아내의 필요)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부부가 10년 20년을 함께 살며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도 부부갈등은 속제로 남는다.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일까? 부부갈등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서로 다른 필요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Willard Harley 박사는 "His Needs, Her Needs"라는 책에 결혼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남자와 여자의 욕구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표했다.

여자집단은 우선순위가 높은 다섯 가지 욕구를 다음의 순서로 매겼다. 1-애정, 2-대화, 3-솔직함과

개방성, 4-재정적인 지원, 5-가족에 대한 헌신이라고 한 반면, 남자 집단은 우선 순위가 높은 다섯 가지 욕구를 1-성적 만족, 2-여가 활동을 통한 친밀한 관계, 3-매력적인 배우자, 4-가정적인 지원, 5-존경이라고 했다.

이런 욕구들에 대해 헨리 버러리가 기술한 것을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해 보았다. 대부분 남자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의 성적은 때로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어떤 것 -긴장, 지루함, 우울 또는 외로움의 해소-의 표현이기도 하다. 심지어 섹스는 그날 낮에 매우

섹시한 여성을 본 것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다.

반면에 여자들은 대개 섹스는 언제나 사랑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남편이 섹스를 통해 다른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 아내를 이용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 그것에 분개하기 시작한다. 게다가 남편들이 쏟던 애정이나 사려 깊은 대화의 양을 줄이게 되면 아내들은 이중의 욕구불만을 느끼게 된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내의 몸과 마음이 준비가 되려면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른다. 남편들은 또한 최선의 전회

를 모르기 때문에, 대개는 대부분의 아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라 아내들이 자극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행위들을 한다.

대체로 젊은 아내들은 남편을 즐겁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정작, 자신이 필요로 하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성경험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다르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아내들은 마침내 섹스는 낭만적인 경험만이 아니라 섹스하는 동안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 섹스에 점점 흥미를 잃기 쉽다. 그리고 "왜 지금이 좋은 때가 아닌지"에 대해 변명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들이 행복하지 못함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다른 소극적인 방법들을 이용한다.

긍정적인 결혼생활의 한 부분인 섹스는 이제 성관계가 약화됨에 따라 다툼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남편은 아내가 섹스에 대해 더 열정적이 되면 결혼생활이 무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반면, 아내는 남편

이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면 섹스에 대해 더 열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에 대해 의도를 경험한 부부들의 후원모임의 공동대표인 닥 브레제는 "아내가 의도를 저질렀을 때, 그녀는 일반적으로 섹스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결혼생활에서 잃어버린 친밀감 즉 로맨스 또는 부드러움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아내들은 솔직함과 개방적(여자들의 세 번째 욕구) 관계를 원한다. 그러나 남자들은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이야기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그 지면에는 불안 및 두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들의 다섯 번째 욕구(가족에 대한 헌신)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남편들은 오랜 시간 일하던 직장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나 고장 난 전기제품 따위를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남편들은 아내가 그런 것들을 적절히 해

결해 주기를 바란다(남자의 네 번째 욕구: 가정적인 지원). 일반적으로 남편이 가족에 대해 그렇게 헌신적이지 못할 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좌절로 이어질 수 있다.

남편들의 다섯 번째 욕구는 찬사 또는 존경이다. 아내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좌절감으로 인해 남편의 약점과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결국에는 그의 장점이 나 긍정적인 노력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다른 어떤 여성으로부터 그가 가정에서 받지 못하던 존경이 그에게 표현된다면 그는 마음을 빼앗기게 쉽게 된다.

위에서 열거한 것들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여자의 욕구와 남자의 욕구와 같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모두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여 부부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며 부부의 삶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부데이트가 꼭 필요하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진화론의 광풍 속에서도 창조
의 믿음을 버리지 않은 파스퇴르
는 위대한 과학자요 진실한 크리
스천, 진정한 창조과학자였다. 당
시 자연주의자들은 미생물들이
저절로 생겨난다고 주장했다. 하
지만 파스퇴르는 현미경을 통해
볼 수 있는 셀 수도 없이 많고 다
양한 미생물들 중에 단 한 개도 저
절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그의 믿음이 자연발
생(진화)설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S-플라스크(Swan-neck flask)
실험을 수행하게 했던 것이다.

S-플라스크 실험의 내용은 무
엇인가? 두 개의 유리그릇에 영양
소가 풍부한 액체를 넣고 똑 같이
끓여 살균을 하였다. 그 다음에 하
나의 유리그릇은 열린 상태로 그
대로 방치하고, 다른 하나의 유리
그릇은 공기는 들어가지만 아주
작은 먼지도 들어갈 수 없게 U자
모양의 트랩을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자 열린 유리그릇의 액체는
썩어가고 있었다. 썩고 있는 액체
속에는 미생물이 셀 수 없이 많이

창조과학 칼럼 (194)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다 그의 손에 (3) 파스퇴르와 리스터

에 수술 후 감염을 줄이기 위한 연
구 그룹이 생겨났다. 담당 의사는
조셉 리스터였다. 당시 과학자들
은 살이 썩어가며 역겨운 냄새를
내는 괴저(혈액공급이 되지 않거
나 세균 때문에 비교적 큰 덩어리

방법은 대성공이었다. 독일 뮌헨
에서는 수술환자 5명 중에 4명이
죽었는데, 리스터의 방법을 적용
하였을 때 200명 중에 단 한 사
람만 죽었다. 이런 소식은 아프리
카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톤(David

다!)이다. 창조도 사실이고 진화
도 사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사
실이 아닌 것으로 사실인 과학이
나 기술이 발달할 수 없기 때문이
다. 성경을 믿은 창조과학자들인
파스퇴르와 리스터 덕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있을
것이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하나님이 정말
로(really) 그렇게 말씀하셨니?”
이 질문에 하와는 확신이 없어 자
기가 만들어낸 말로 대답했다. 거
짓인 진화론을 과학이란 이름으
로 잘 포장한 것을 가지고, 사탄은
현대의 크리스천들에게 하와에게
했던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성경이 정말로(really) 하나님의
말씀 맞아?” 대다수의 신학자들
이 하와처럼 자기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말로 대답하였다. 그 대
답들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들
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과 다른
창조이론들과 해석들이다.

성경과 다른 창조 이론들이 의
미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 성

파스퇴르의 세균이론, 리스터의 소독액은 창조론 증명 복음은 진화론 벗어나 성경의 창조로 들어올 때만 온전

들어 있었다. 하지만 먼지가 들어
갈 수 없게 한 유리그릇의 액체는
썩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S-플라스크 실험의 결론은 무
엇인가? 공기는 자유롭게 통과하
지만 아주 작은 먼지조차도 통과
하지 못한 유리그릇에서는 미생
물이 전혀 생겨나지 않았다. 미생
물들은 영양이 풍부한 액체 속에
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미생물이 공기 중에 떠
다니다가 그 액체 속에 들어갔고
거기서 그 숫자가 더욱 늘어난 것
이다. 아무리 간단한 생명체라도
(지난 칼럼에서 썼듯이 실재로는
사람이 만들 수 없을 만큼 복잡하
다)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
다. 생물은 생물에게서만 온다는
생물속생설(biogenesis, 生物續生
說)이 증명된 것이다. 그 맨 처음
생물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
까? 파스퇴르는 성경에 기록된 창
조가 사실임을 믿고 있었고 사실
일 수밖에 없음을 실험으로 보여
준 것이다.

파스퇴르의 이 역사적인 실험
결과를 신뢰하고 여기에 근거
하여 또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면 또
다른 창조과학자가 있었는데 조
셉 리스터(Joseph Lister, 1827-
1912)였다.

1861년, 역시 다윈의 진화론
의 광풍이 몰아치던 때였다(1859
년). 영국의 글래스고우의 한 병원



파스퇴르와 리스터의 창조 신앙과 그 열매
진화론의 뿌리에서는 어떤 좋은 열매도 맺지 못한다.

의 세포조직이 죽는 현상)나 감염
은 병균 때문이 아니라 나쁜 공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다.

1865년, 리스터는 파스퇴르의
세균이론과 병원균이 공기를 타
고 옮겨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석탄산(carbolic acid)을 사
용하여 수술대에 세균이 없도록
하였고, 공기 중에도 미세하게 뿌
렸다. 당시 의사들은 수술이 끝났
을 때 손을 씻었지만 리스터는 수
술하기 전에 손을 씻었다. 피 묻
은 수술복 대신 깨끗한 수술복을
입은 최초의 의사가 되었다(당시
에는 수술복이 얼마나 피로 얼룩
진 더러운 것이었는지가 의사들
의 영광이었다). 리스터의 수술

Livingstone)에게까지 전해져 그
도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미국 의사 조셉 로렌스(Joseph
Lawrence)는 리스터의 석탄산보
다 더 약한 소독액을 만들어서 수
술 중에 사용하였다. 이 소독액은
지금 조셉 리스터의 이름을 따라
리스터린(Listerine)이란 이름으
로 판매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진화론으로 과
학과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가?
진화론으로 과학과 기술이 발전
한 예가 있는가? 진화가 사실이었
다는 단 한 가지의 증거라도 있는
가? 이 질문들에 대한 모든 대답
은 한결같이 그리고 분명하게 “없

경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다. 믿
음의 근거인 성경을 부정해버린
것이다. 그 결과와 지금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는 교인 감소와 문 닫
는 예배당들이다. 그나마 아직 교
회에 남아 있는 거의 대부분(4분
의3)의 교인들은 성경의 내용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실존주
의적인 믿음 때문에 남아 있다. 성
경의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만
들어낸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이 데이터는 이미 오래 전 것이다
(2008년).

세상이 어두울수록 같은 빛이
라도 더욱 강렬하게 보이듯이 진
화론으로 복음이 가려져버린 지
금 온전한 그 복음은 우리를 더
욱 감격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능
력이다. 필자는 35년 동안 복음의
핵심 내용인 성경 그대로의 완전
한 창조-반역과 타락-격변적인
홍수-바벨탑-예수 그리스도-십
자가와 부활-하나님의 뜻 성취를
제대로 알지 못했었다. 진화론의
영향으로 창조에서 바벨탑까지의
역사가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
이었다. 복음은 진화론에서 벗어
나 성경의 창조 안으로 들어올 때
만 온전해진다. 자기가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사실인 복음에 감
격하는 능력 있는 진짜 크리스천
들이 많아지기를 고대한다.

이메일: mailforwchoi@g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행복한 가정

토마스 칸케이드의 그림에는 자연과 더불어 집 풍경이 많이 나
오는데 그 집들은 노을과 어울린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눈
쌓인 숲속에 포근하게 자리하기도 하면서 아늑하고 평안한 느낌
을 준다. 만약 그림 속의 집안에 들어가 볼 수 있다면 따뜻한 저
녁식탁에 가족이 둘러앉아 오소도소 사랑을 나누며 식사를 할 것
같은 상상이 되기도 한다. 요즘같이 이혼율이 높은 때에 우리
모두가 바라는 행복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과 우리 크리스천이 정의하는 행
복한 가정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상이 정의하는 행복과
우리가 정의하는 행복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상은 행복이 개인
이 바랍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소유함에 달려있다고 정의한다.
즉 물질, 교육, 자위 등 눈에 보이는 것과 드러나는 것을 웬만큼
은 갖추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성취를 위해 일상 속에 숨어있는 작은 기쁨들을 놓치며 정
신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의 행복은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닌 나눔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
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내
가 받은 사랑을 곁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고 나눌 때 우리의 삶속
에 행복이 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무엇
보다도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일 것이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살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한 점을
다른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이이지만 그 부족을 고치려하고 잔
소리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
정이다. 혹시 계속되는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곁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을 고친 적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잔소리의 결과
로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말을 나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
가 아직 연합할 때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을 깨달을 때 그 사랑에 우리의 삶이 바뀌듯이 배우자나 자녀의
부족한 모습을 알면서도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할 때 우
리의 가족들은 사랑 안에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로를 향한 인내가 행복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미성숙이
성숙으로 나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린 아기가 어머니
의 오랜 돌봄과 희생을 거쳐 청년으로 성숙하듯이 사람의 내면
의 성숙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은 여러모로 부족하고 별 볼
일없지만 십년 후에 혹은 이십 년 후에 은혜로 바뀌어질 배우자
나 자녀의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며 지켜보는 것이 인내하는 사
람의 모습이다. 주님께서 자주 넘어지는 우리를 한없는 인내로
기다리시며 성숙의 자리로 이끄셨음을 기억하면서 상대방의 변
화될 최선의 모습을 믿음으로 그리며 인내하는 가정은 주님 안
에서 행복을 누릴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서로를 격려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
각한다.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각
자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무거울 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서로의
마음을 녹이는 가정은 행복한 곳이라고 생각된다. 주님께서 주
님을 부인한 후 기가 죽어있는 베드로를 격려하시고 새로운 사
역의 장으로 초대하셨듯이, 거칠고 힘든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
패하며 살아갈 때 “괜찮아, 다음에는 잘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
는다”라는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곳, 마음의 다리 쪽 받고
누울 수 있는 곳이라면 세상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은 원베드룸
(one-bedroom) 아파트라도 그 곳은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
는 행복한 가정이다.

이메일: lpyun@apu.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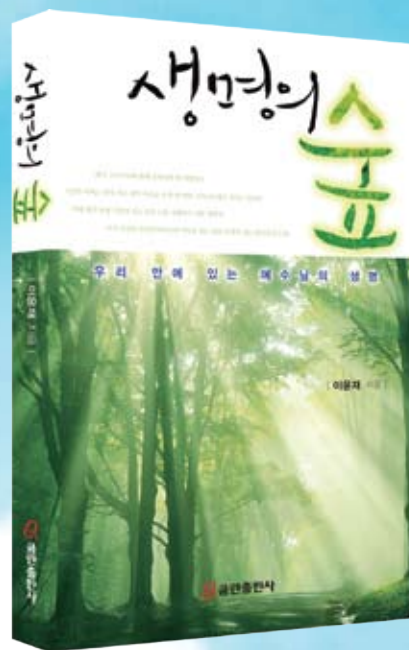
한신교회 이운재 목사 신간



예수 제자의 삶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의 좋은 제자인가?
한국교회에서 예수영성의 회복을 부르짖는
한신교회 이운재 목사의 오랜 고민의 흔적이 담긴 책.
『예수 제자의 삶』 --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마리아의 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제자의 삶,
두 시리즈로 이어지는 글에서
우리는 예수님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한다.
『예수 제자의 삶』이 제시하는
예수 제자 된 삶을 이제 펼쳐보자.



320면 / 14,000원

생명의 숲

생명을 말하다.
당신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 안에서 목마름이 해결되었는가?
예수생명 안에서
자라고 나누는 풍성함...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분당한신교회 이운재 목사

요한복음 15:7-8

<p>이운재 목사의 다른 저서들</p>	<p>성경의 은유 508면 / 17,000원 변화 344면 / 12,000원 생명의 초청 272면 / 10,000원 성령이 임하시면 240면 / 9,000원 광야의 영성 256면 / 8,000원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250면 / 9,000원</p>				



목회서신

괘씸죄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교회에서 고등부 회장을 맡고 있던 때의 일입니다. 한 후배가 저를 마치 종 부리듯 부려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명색이 회장인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겉으로는 끝까지 참고 최선을 다해 섬겨주었지만 속으로는 "내가 네 종이나. 두고 보자"며 투덜거렸습니다. 그 후 배는 제게 적어도 단단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다른 사람에게 적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부 회장 때 모든 일해 노파십 혹은 자신의 소신을 관철시키기 위해 앞에

서는 잔소리, 뒤에서는 조정하려 하시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혈기왕성하고 회장 경력이 많았지만 미성숙했던 저는 그 선생님의 개입이 그리 달갑지 않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괘씸죄'로 걸렸던 제가 선생님께는 '괘씸죄'로 걸렸던 것이었습니다. 결코 걸리고...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괘씸죄'란 '아랫사람이 윗사람 혹은 권력자의 의도에 거슬리거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하여 받는 미

움을 비교하여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죄는 대한민국 법 조항에는 없지만 관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때로는 법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가진 법 아닌 법(?)입니다. 한 번 걸리면 그 죄 값(?)이 너무나 커서 쉽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에 따르는 불이익은 물론이고 오랜 고통과 파달림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한국사회에는 '괘씸죄'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대에 가겠다고 선언하고는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 연예인은 '괘씸죄'에 걸려서 한국 정부로부터 입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한 수영 선수는 '괘씸죄'에 걸려서 체육회로부터 올림픽 수상금을 한동안 받지 못했습니다. 반장업자가 한 번도 담임선생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괘씸죄'에 걸려서 그녀의 아들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교단 어르신 목사님들에게 '괘씸죄'에 걸려서 이단으로 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괘씸죄'는 우리 정서에서 가장 용서받기 어려운 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괘씸죄'는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내 눈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모두 '괘씸죄'의 대상입니다. 예쁜 척하거나 나보다 예뻐도, 똑똑한 척하거나 나보다 똑똑해도 '괘씸죄'에 걸립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면 잘난 척한다고 '괘씸죄'에 걸리

고 봉사를 하지 않으면 이기적이라고 '괘씸죄'에 걸립니다. 그러면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는 '괘씸죄'의 처방약은 없을까요? 고민해보니 아무래도 우리의 태도(attitude)에 그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뢰의 관계를 맺는 데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상대방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중요할 것입니다. 능력과 지능보다도 그리고 깊은 영성보다도 태도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정성 있고 겸손한 태도가 '괘씸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고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괘씸죄'라는 울가미로 얽지 않게 도와주지 않을까요. 학생 시절, 저의 문제도 태도였습니다. 후배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참었지만 속으로는 우월감에 빠져있었던 저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선생님을 마음으로 존경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한 저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다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방관하

지 않으시고 주위 사람들과 환경을 통하여 책망하셨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괘씸죄'라는 마수의 멍을 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괘씸죄'라는 미운털이 박히셨습니까? 먼저 나의 태도를 바꾸어야 관계가 풀립니다.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관계 속에 보여주시고 온화한 '태도'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대면하셨던 예수님의 태도, 즉 자기를 배신한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마11:28-29).



PCA 총회 중 집행부와 한인 지도자들 모임을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PCA 총회장에 Dr. Bryan Chapell 선출 한인 2세 목회자들 약진 돋보여

미국장로교(PCA) 총회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휴스턴에서 열려 총회장에 커버넌트신학교 총장인 Dr. Bryan Chapell 목사가 선출됐다. 이번 총회 중 진행된 전체 특강은 'PCA 과거 현재 미래' 주제로 PCA의 정체성과 비전을 선포 했다. 강사로는 Dr. Roy Taylor, Dr. Bryan Chapell 그리고 Murray Lee 목사가

가 담당했다.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아동학대'(Child Abuse)로 가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진행됐다. 특히 19일 오전 6시 30분 집행부에서 초청한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목회자들은 더 많은 한인 회원들의 참석을 이끌어 내 한인 회원의 위상과 영향력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고 실

질적인 대화를 나눴다.

특히 총회에 헌의된 한인서남노회(LA지역) 분립의 건이 통과돼 LA와 오렌지카운티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25-30개 교회를 관할하게 됐다. 이로써 PCA 전체 82개 노회 중 한인노회는 9개로 그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한편 CKC(한인교역자총연합회) 회장 민경엽 목사와 교단내 한인 지도자들과의 자연스런 대화의 장이 이뤄져, 앞으로 적극적인 2세 진출을 통해 교단적 행사 참여는 물론 교단 지도도 해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 깊은 시간도 가졌다.

오랫동안 총회에 참석해온 나성균 목사는 "총회 기간 중 열린 유익한 세미나들과 한인목회자들의 참석독려가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한인 2세 빌리암 목사("Korean Americans in the PCA: Envisioning a Better Future")의 세미나와 15세 심수영 목사의 19일 저녁예배 설교는 교단 내 한인교회의 발전과 변화를 보인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미국총회 동성결혼 통과' 따른 성명서 발표 미국장로교한인교회전국총회 제 43회 정기총회

미국총회의 동성결혼 통과에 따라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미국장로교(PCUSA) 한인교회전국총회(NCKPC, 총회장 유승원 목사) 제 43회 정기총회 및 전국대회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메인 주 포틀랜드 소재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렸다.

하시는 성서적인 개념이라고 믿는다.

2. 우리는 미국의 여러 주(현재 19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점차 합법화 되어가는 동성 결혼이 분명히 비성서적이라고 규정하며, 우리의 신앙양심에 따라 미국장로교한인교회전국총회는 어떤 형태로든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도, 시행하지도 않을 것임을 밝힌다.

3.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장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만 가능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도 회개를 통하여 거듭난 새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진리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4. 미국장로교한인교회전국총회는 221차 교단총회와 결의하여 산하 노회에 수의한 동성 결혼에 대한 개정안의 통과를 결연히 저지할 것이며, 산하 교회와 목사들은 어떤 경우에도 동성 결혼의 집례나 이를 위한 교회 건물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1.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지켜왔던 결혼에 관한 전통과 이해는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인간에게 요구

"미국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는 창조적인 이민목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는 주강사로 이학준 교수(폴리신학교)를 초청했다. 2일간 선택강의는 정치경제의 변화(김경일 장로), 사회문화의 변화(배현찬 목사), 뉴워싱턴커뮤니티(김선배 목사), 선교공동체로서의 NCKPC(정인수 목사), 동북아시아 선교(임춘식 선교사), 캐나다원주민을 위한 비즈니스 선교(김진수 장로), 한류 K-Pop 그리고 영어사역(김은주 목사), 텍스트시대의 목회적 돌봄(구미리양 목사),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이정인 집사) 등이 진행됐다. 궁전과 선임을 통해 결정된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이영길 목사(보스톤한인장로교회) △목사 부총회장 배현찬 목사(리치몬드 주에수교회) △평신도 부총회장 조기현 장로(인디애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 △남산교회 대표 김영철 장로 △연서교회 대표 김한나 집사 △감사 김길수, 심순자 장로 △협동총무 이상현 목사(콜럼비아한인연합장로교회) △서기 문은배 목사(차타누가한인장로교회) △회계 이호영 장로(아들란타한인연합장로교회) △사무총장 신정인 목사.

(정리: 유원정 기자)



희망나눔콘서트가 엘 카미노 칼리지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CTS America, 희망나눔 콘서트 율타리선교회, 나성영락교회소망부 후원금 전달식 가져

희망나눔 콘서트가 CTS America(대표 김충철 집사) 주최로 6월 29일 오후 7시 엘카미노 칼리지 오

디토리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동진 목사와 제니퍼 박 자매의 사회로 시작된 콘서트는 테너 최승

원,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노유진 양,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켄 아이소, 피아니스트 앤드류 박 교수, 첼리스트 최경은 교수, CTS & ECC Combineo Orchestra 등 국내외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음악인들이 대거 참여해 아름다운 무대를 선사했다.

앤드류 박 교수는 "남을 돕는데 동참하게 돼 가슴이 벅차다. 도움을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만 배 이상의 기쁨을 받게 된다. 희망콘서트로 인해 관객들과 연주자들에게 행복 바이러스가 전해져 나눔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율타리선교회(대표 나주옥 목사)와 나성영락교회 소망부에 후원금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대상 조앤 박, 금상 스테파니 유 KGBC 제1회 남가주 어린이찬양대회 성황

KGBC 미주복음방송(사장 박신욱 목사)과 남가주 한인교회 음악협회(회장 서병호 장로)가 공동주최한 제1회 남가주 어린이찬양대회 본선이 지난 21일 오후 브레이크에 위치한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열렸다.



자수아 우 어린이가 감미로운 음성으로 에메이징 그레이스를 들려주고 있다.

6월 7일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올라온 중창, 합창, 독창 등 17팀의 찬양은 참석한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수상자는 대상 조앤 박(선한목자장로교회), 금상 스테파니유(에브리데이교회), 은상 조셉황(마가교회), 제니리(남가주 사랑의교회), 동상 조셉리(오렌지 중앙교회), 에스터임(남가주든든한

교회), 에스터리(터스틴침례교회). 특히 뮤지컬팀 The Dreamer와 KYVC청소년합창단, 찬양 율동팀인 God's Image의 특별출연으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됐다.

이날 경연 중에는 시력장애를 안고 태어나 한쪽 눈을 실명되고 나머지 한쪽 눈의 시력도 20프로 정도밖에 남지 않은 어린이가 가사를 모두 외워 노래를 불러 깊은 감동과 은혜를 안겨주었으며, 이 찬양대회를 위해 성령통독을 하며 기도도 자녀를 도왔다는 부모님, 교통사고를 당해 반신불수로 누워계신 할머니를 위해 부르던 찬양을 소개한 어린이 등 참석한 이들의 뜻이아기들로 훈훈한 사랑을 전하기도 했다.

첫 대회이지만 참석자들의 실력이 아마추어를 넘는 훌륭한 음악성들을 가지고 있어 듣는 이들을 놀라게 하고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첫 행사 탓인지 진행에 매끄러움을 보이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복음방송 관 관계자는 "제 2회 대회에는 더 많은 교회와 자녀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전하기도 했다.

(이성자 기자)



미주여성코랄 기념음악회에서 단원들이 찬양하고 있다.

미주여성코랄 23주년 기념음악회 선교사자녀 장학금 기금 마련 겸해

선교사자녀 장학금 기금 마련 및 미주여성코랄(단장: 김미나, 지휘: 오성애) 23주년 기념음악회가 6월 29일 오후 7시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오 목사)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한오 목사의 오픈기도로 시작된 음악회 첫 무대는 붉은 원피스로 단장한 코랄단원들이 '주님의 손귀를 주님께'를 불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어 암환자 합창단원들이

며, 미주여성코랄은 마지막 무대에서 '천지창조', '시편', '주 하나님 세우신 모든 세계'를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두 곡의 앵콜을 받은 후 관중들과 함께 '이 믿음 더욱 굳세어라'를 부르고 정준용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김한오 목사는 축하 메시지에서 "찬양은 소리보다 선명하고, 찬양은 음악보다 크고, 찬양은 노래 그 이상의 노래이며 찬양은 능력이 있다"고 전했다.

미주여성코랄의 연습 장소는 베델한인교회이며, 연단 문외는 (909)319-2158로 하면 된다.

(정리: 박준호 기자)



거리문화사역단체 더텐트의 '젊음의 콘서트 PART II'가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김성아, 윤국형, 최윤영, 엘리시신, 캘빈박 등 출연자들의 공연모습

'젊음의 콘서트 파티' 앵콜 쇄도 거리문화사역 더텐트, 캘빈박 등 5명 출연

거리문화사역단체 더텐트(대표 다니엘방 목사)가 주최한 '젊음의 콘서트 파티II'가 6월 28일 오후 8

시 가주영어학교 1층 주차장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김성아 전도사(은혜한인교회)의 사회와 오프닝 무대로 시작된 콘서트는 색서폰 연주자이자 베이스대학교 음악과 캘빈박 교수, CCM 가수 최윤영, 재즈피아니스트 윤국형, CCM루키선발대회 입상자 엘리시신이 출연해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했다.

이날 캘빈박 교수의 소프라노 색서폰 연주시간에는 관객들이 색서폰 선율을 꼭 찾아들었으며, 최윤영 씨의 청아한 목소리에 빠져들기도 했다. 특별히 윤국형 씨의 연주가

끝나자 앵콜 요청이 쇄도해 앵콜 곡을 연주하기도 했다.

한편 코리아타운 LA홍사단 보이스카우트 TROOP777의 조셉신 대장과 보이스카우트 대원 20명이 참석해 오는 7월 19일(토)부터 22일(화)까지 LA 한인 타운에서 출발해 샌페드로 우정의 종각에 도착하는 총 40마일 구간을 걷는 'FREEDOM WALK 2014' 탈북민 구호 모금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다.

이날 공연을 관람하러 온 관객은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어 좋았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공연을 관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더텐트의 파킹랏 콘서트 7월 공연은 7월 26일(토) 오후 8시에 열리게 된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기사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 산하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준 박사)가 2014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모집과과는 △대학부: 신학과(4년), 선교학과(4년) △대학원: 목회학(3년), 기독교교육(2년), 선교학(2년) △여교역학과(3년). 제출서류는 입학원서, 당회장/목사 추천서,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신앙고백서, 명함판 사진, 입학전형료 30달러 등이다.

▲문의: (718)463-7163, (646)717-2733

미주 목양장로사역권퍼런스

목양사역원(원장 최홍준 목사)이 주최하는 제 21차 미주 목양장로사역권퍼런스가 2014년 9월 30일(화)부터 10월 1일(수)까지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에서 열린다. 22차는 10월 7일(화)부터 8일(수)까지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린다.

▲인터넷 등록 www.pastoralministry21.com/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 회장 이취임예배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전희수 목사) 회장 이취임 예배가 7월 21일(월) 오전 10시30분 플러스 대동연회장에서 열린다. 신임회장 전희수 목사는 제 6회기를 이끌게 된다. 직전 회장은 이미선 목사.

▲문의: (646)270-9771

미드웨스트대학교 학생 모집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송 박사)가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학생들에게 특별장학혜택도 부여한다. 학위취득은 온캠퍼스(1-20버저 발행)와 온라인(세계각국), 블랜드(소집강의와 온라인교육 병행) 강의가 있다. 학위과정은 ESL과 △대학부: BRT, BS, CE, BRM, BRBA △대학원: MCC, MCE, MCM, MML(TESOL), MD △박사원: D.Min(상담, 교육, 선교, 목회학), DCM, DCL. www.midwest.edu

▲문의: (636)327-4645

살렘한인장로교회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살렘한인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가 7월 10일(목)부터 12일(토)까지 어린이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본 교회 어린이들의 축제이자 양육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도의 좋은 기회로 삼는다고 한다.

▲문의: (704)529-0900

계시록 강의

정성만 목사(설교클리닉 뉴저지지방장)를 강사로 하는 계시록 강의가 7월 7일(월) 오후 8시에 열린다. 주제는 마라나타성경원(Maranata Bible Institute). 정 목사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제 1회 목회자를 위한 계시록 특강을 가진 바 있다.

▲문의: (201)988-1663

“봉사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 돼라”

NJUCA 제 8회 졸업식 한인 5명 등 총 15명 졸업

뉴저지유나이티드크리스천아카데미(NJUCA, 교장 Mr. Pupchik)의 제 8회 졸업식이 지난 20일 NJUCA 캠퍼스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Daniel McKeon 목사의 개회기도, Sam Jung 등 재학생 3명의 미 국가제창, 장학금 수여식과 리더십 시상식에 이어 Valedictorian Paul Dryer군의 졸업 연설, 차석 졸업자 Emily Wu 양의 졸업 연설이 이어졌다.

Andrew Rappaport 목사는 졸업생 축사에서 처칠수상의 "Never Give up"을 강조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설립자이며 재단이사장인 신정하 박사는 졸업생들의 노력과 선생님들의 헌신, 학부모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매년 5만 달러 이상의 장학금을 기부해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Friends of NJUCA(학교후원회)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시했다. 신 이사장은 졸업생들에게 “사회에 나가 커뮤니티와 하나님께 봉사하는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줄 것”을 당부했다.

졸업식은 나구용 목사의 축복기도로 마치고 이어서 Mr. Pupchik 교장의 축하 말이 있자 15명의 졸업생 (한인 5명, 미국인 10명)들은

뉴저지교협 부회장에 이병준 목사 선출

교협사무실 마련 기금 모금 골프대회도 개최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동욱 목사)가 지난 25일 월례회에서 공식이던 27회기 목사부회장에 이

병준 목사(뉴저지 행복한국교회 담임)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병준 목사는 뉴저지 목사회 4대 회장을 역

임한 경험과 역량으로 교협에서 동역할 것이라고 임원진들은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뉴저지교협은 지난 21일 '교협 사무실 마련 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뉴저지 햄버거에 위치한 그레이트

조지 골프장에서 열었다. 약 7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진행된 이날 행사는 회장 김동욱 목사(뉴저지만나교회 담임)의 인사말과 총무 박근재 목사(시나브로교회 담임)의 광고, 그리고 조용복 프로골퍼(필그림교회)의 경기 진행 안내에 이어 오후 1시부터 샷건 방식으로 경기가 치러졌다. 이 행사에서 모금된 전액은 '뉴저지교협 사무실 마련'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사제공: 뉴저지교협)



뉴욕늘기쁜교회 설립기념 및 임직식을 마치고 임직자와 담임목사부부, 참석목회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잘 쓰임 받고 상도 받는 일꾼 되라

뉴욕늘기쁜교회 14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설립 14주년을 맞은 뉴욕늘기쁜교회(담임김홍석 목사)가 지난 29일 저녁, 감사예배 및 14명의 임직식을 가졌다.

김홍석 목사는 “지난 14년간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충성된 일꾼들을 임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감사예배는 황동익 목사(뉴욕목회자 협회)의 기도에서 시작됐다. 김홍석 목사는 “그리스도의 일꾼(고전 4:1-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방각각 목사는 일꾼이란 단어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노예, 사람의 판단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의 판단에 따르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며 처음과 끝이 같은 초지일관하는 사람”이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고한 후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한다. 좋은 직분자는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처럼 담임목사를 잘 도와야 한다. 일꾼이 되어야 일감이 되어서는 안된다. 생활의 본과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방 목사는 “루터가 말했다듯 가릇 유다처럼 한때 사 용되다 버림받는 원팔 일꾼이 아니라, 잘 쓰임 받고 상도 받는 오른팔 일꾼이 되라”고 말했다.

임직식은 김홍석 목사의 인도로 서약, 집사안수 및 기도, 권사 임직기도, 공포로 진행됐다. 이어 이용도 목사(ARPC 한인 임시부장)의 권면, 한재홍 목사(뉴욕교협 중경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임직자가 교회에게, 교회가 임직자들에게 예물 증정시간을 가진후 케리그마 중장단의 축가가 있었다.

임직자 대표 이석규 집사의 답사, 김광석 장로의 광고 후 허걸 목사(뉴욕교협 중경회장)의 축사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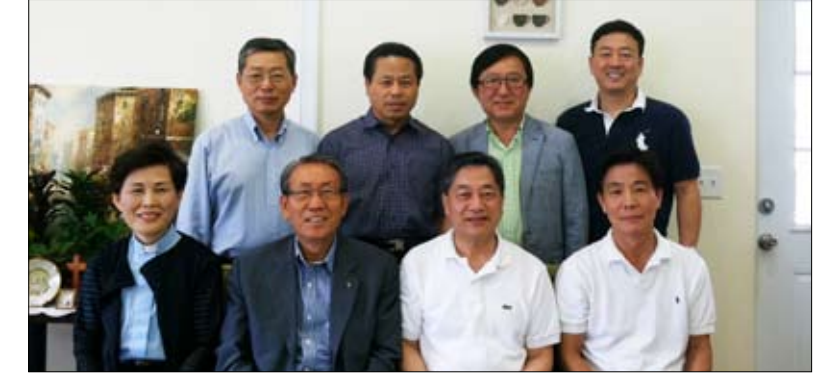
임직자는 다음과 같다. △안수집사 임직: 강인규 이병무 정성훈 △안수집사 취임: 강영규 김해수 이근호 이상준 이석규 정재찬 △권사 임직: 김태미 이미자 △권사 취임: 김신배 유정애 이순용. (정리: 유원정 기자)

일제히 사각모를 하늘로 던지며 졸업업을 자축했다.

올해 개교 10년을 맞은 크리스천 사립고등학교 NJUCA는 기독교 영성을 중심으로 소수정예의 기독교 리더교육에 전력, 15명의 졸업생들 중 15명이 전원이 대학에 진학했으며 이중 75% 이상이 장학금을 수여 받았다. (기사제공: NJUCA)



NJUCA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사각모를 던지고 있다.



뉴저지교협 임원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앞줄 가운데 왼쪽이 이병준 부회장, 오른쪽이 김동욱 회장.

미주한인여목협 신임회장에 전희수 목사

6회 정총 및 컨퍼런스, 특강에 차감전 목사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6회 정기총회 및 컨퍼런스가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스토니포인트센터에서 열려 신임회장에 전희수 목사를 선출했다.

전희수 목사는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방향할 때 주님의 강권적인 부르심과 소명을 받고, 지난 30여년간 여성 목회자의 길을 달려왔다”며, 신임 회장으로서는 “첫째, 회원들의 영성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겠다. 21세기 변화하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보며 여성 목회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느낀다. 보다 나은 비전을 가지고 자신감 있는 여성 목회자로 발전해 나가는 회원들이 되도록 성령의 임재가 강한 예배와 교육(세미나)을 하겠다. 둘째,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여성 목회자들을 세워주며 성령으로 하나 된 연합의 힘으로 회원 상호간 교제와 정보교환, 더 나아가 사회와 교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주여성목회자협의회가 되도록 섬기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깊은 데로 가서”(눅5:4) 주제를 열린 총회 및 컨퍼런스에서는 차감전 목사(한국 시흥순복음교회 담임)를 주강사로 3년의 특강을 진행했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직전회장 이미선 목사와 신임회장 전희수 목사(오른쪽).

4-5회기동안 회장을 맡은 이미선 목사는 개회예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또 회장이임사를 통해 “모이기에 더욱 힘써 달라”며, “열심을 내십시오. 깊은데 가서 그물을 내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에 쓰임을 받는 합당한 그릇이 되어 남은 삶을 불태우십시오”라고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포럼-목회자의 자질 문제(김신영 목사)와 목회자 성장과 위기관리(장경호 목사), 단막극 발표회, 웃음치료를(이진아 목사), 레크리에이션(이미선 목사), 건강체조(박옥자 목사), 찬양(안경순 장만자 목사) 등 영육간의 조화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정리: 유원정 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동부(NY, NJ) 교회' (East Church) listing various congregations and their pastors. Includes contact info for NY and NJ locations.

CBS기독교FM 7월 17일 개국

FM 107.5 HD2...시애틀, 뉴욕, 시카고 등 확장

CBS기독교FM(대표 최영일)이 오는 7월 17일 개국한다. CBS기독교FM 관계자들은 27일 오전 11시 30분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된 FM라디오 종합 기독교 프로그램 방송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취지로 17일 본격 개국한다고 밝혔다.

최영일 대표는 "한국 CBS와 콘텐츠 계약을 맺어 한국 내외의 굵직한 내용의 시사, 뉴스관련 방송, 예능프로그램, 성서강해 등을 미주 청취자들에게 전하게 됐다"며 "남가주 현지에서도 교계뉴스, 설교, 칼럼, 찬양, 간증, 인터뷰 등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BS기독교FM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험방송에 들어간 상태로 가정 지역은 남쪽은 앨버틴 남단, 북쪽은 랭캐스터, 산타바바라 지역, 동쪽은 리버사이드, 팜스프링 초입까지다.

주중과 주말 24시간 FM 107.5 HD2를 통해 들을 수 있다. CBS기독교FM은 향후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 애틀랜타, 시카고, 휴스턴, 달라스 등에도 추가 개국할 예정이다.

한편 CBS는 개국감사예배를 개국일인 17일 오후 6시 나성순복음교회에서 갖는다. ▲문의: (213)674-5518 (박준호 기자)



CBS 기독교 FM개국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최영일 대표(사진 가운데)가 방송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성동산교회에서 열린 부흥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조성근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엘리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성동산교회 부흥성회 성황, 강사 조성근 목사

나성동산교회(담임 한기형 감독)는 ‘엘리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제로 26일부터 29일까지 조성근 목사(갈멜산기도원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동산산양팀의 찬양인도와 한기형 감독의 사회로 시작된 29일 마지막 집회에서 조성근 목사는 ‘좋은 일’(마26:6-1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조성근 목사는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일이다.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여기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면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복음은 설득력이 있다. 복음을 받은 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 받은

자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우리 복음 받은 자들은 복음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아름다운 헌신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과 비교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날마다 가정이 축복되며, 각자의 처소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축복하는 일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한기형 감독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조성근 목사는 갈멜산 기도원에서 7월 8일(화)까지 특별 집회를 인도한다. 집회문의는 (213)382-1450으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예수 치유와 건강 세미나

오렌지카운티한인목사회(회장: 김영찬 목사/효사랑선교회 대표)와 JAMA(대표: 김춘근 장로) 주관으로 '예수 치유와 건강 세미나'가 7월 14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에나팍에 있는 갈보리선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로는 신경과와 뇌파 전문의면서 목회자인 배성호 박사가 맡는다. ▲문의: (213)598-5323 강영수 목사



어린이전도협회 스태프진들

CEF 어린이 새생활 성경캠프 연다 7월 14-17일 “하나님을 알자” 라는 주제로

미국어린이전도협회 한인지회(CEF 대표 여병현 목사)는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4일간 샌프란시스코의 랜초 이바라 크리스천 캠프장에서 “하나님을 알자”라는 주제로 ‘어린이 새생활 성경캠프(New Life Bible Camp)’를 개최한다. 어린이 전문선교기관인 어린이 전도협회는 매년 방학 때마다 성경캠프를 주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어린이들에게 성경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올바르게 믿고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알자”(Him: He is I am)라는 주제로 캠프가 진행된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살아계신 줄 알게 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라는 비전을 갖고 어린이들 모두가 이 땅에서의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캠프가 진행된다. 어린이전도협회 대표인 여병현 목사는 “혼탁한 세상에서 벗어나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생활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다른 환경 속에서 적응하는 사회성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다”고 캠프의 장점을 소개했다. 본 캠프는 선착순 150명에 한해 신청 접수중이며 참가비는 7월 7일까지 등록시 190달러다. 매년 긴 여름방학이 되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안전하면서도 리더십과 지적, 사회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찾으려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성경적이며 복음적인 어린이전도협회 캠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13)382-1544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어린이전도협회)



빛과 소금의 교회 창립 감사예배에서 이정현 담임목사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

“새 시대, 새 가족부대의 교회” 29일 빛과소금의교회 설립 감사예배

빛과소금의교회(담임 이정현 목사) 설립 감사예배가 지난 29일 오후 3시 3521 Lomita Blvd에 소재한 교회분당에서 있었다.

성도들과 축하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정현 담임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김관중 목사(사우스베이벤엘교회) 기도와 장규대 목사 설교로 진행됐다.

장규대 목사(이스라엘 선교사)는 ‘교회 부흥 나의 부흥’(행2:42-47)의 제목으로 “교회는 교인이 아닌 성도가 모이는 곳, 주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이들이 모이는 곳이다. 종교인의 탈을 벗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면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일용 목사(개혁신학대학원 교수), 김강인 목사(사우스베이 말씀교회)가 격려사를, 오세훈 목사(세계소망교회)가 축사를 전했으며 박희성 목사(예광교회)의 축도

로 예배를 마쳤다. 본 교회는 설립예배를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와 장규대 목사를 강사로 부흥집회를 갖고 온 성도가 새로운 출발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했다.

빛과소금교회는 지난 3월 이정현 목사를 중심으로 20여명의 헌신된 일꾼들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림으로 태동되어 ‘새 시대 새 가족부대의 교회’라는 표어 아래 ‘예배갱신과 제자훈련,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하고 이민지를 치유하는 말씀의 집’으로 굳게 세워져가고 있다.

또한 빛과소금의교회에서는 영어가 가능한 주일학교 전도사를 청빙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https://www.facebook.com/LSPC.ORG>에서 볼 수 있으며 (310)325-5772, 749-47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제2회 생명살리기 소망갤러리 감사예배 굿네이버스, 유진벨재단에 후원금 전달

소망소사이터티가 창립 6주년 기념으로 개최했던 '제2회 생명살리기 소망갤러리'의 후원자 감사예배가 지난 26일 드려졌다. 소망소사이터티는 이날 갤러리의 후원금, 수익금 및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소망소사이터티 최경철 사무총장의 사회와 소망갤러리 공동준비위원장인 이정미 이사의 환영인사로 시작된 예배는 이번 갤러리의 이종열 공동준비위원장, 작품 후원으로 도움을 준 권윤섭 작가, 신옥균 작가, 김상동 작가, 그리고 김정빈 고문, 김동형 목사, 이창순 목사, 전용한 목사 등이 함께 참석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망소사이터티 명예이사인 정영길 목사는 기도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김동형 목사는 “나눔의 손길에는 작고 큰 것 없이 모두 아름답고 나눌 수 있는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자”고 말했다. 격려사를 전한 이창순 목사는 ‘Sharing’이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하며 “가지고 있어봐도 그저 물건일 뿐이고 돈 뿐인 것을 나누었을 때 가질 수 있는 마음”에 대해 나누었다.

소망소사이터티는 지난 5월 9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소망갤러리에 도움을 준 후원자와 후원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소망우물 후원금 1만6천 달러 (소망우물 5개)를 굿네이버스 USA 김재학 실장에게 △북한결핵환자 치료를 위한 3차 후원금 1만 달러를 유진벨 재단 임 호 이사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한인 독거노인 지원금 8천 달러와 남은 금액을 소망소사이터티 사역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터티는 제2회 생명살리기 소망갤러리 감사예배를 마친후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하나님 은혜 그 역사의 재발견
성지순례 선교여행
Pilgrimage Holyland Mission Vision Trip

순례코스 일정 **MISSION VISION TRIP**

A 코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따라) 11박 12일 1) 예시교 칸쿤(유카탄 반도)8쿠바

B 코스: 터키 그리스 베트남 (바울의 전도에 따라)11박 12일 2) 페루 아마존(영가문명)

C 코스: 프랑스 스위스 독일 체코 이탈리아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11박 12일 3)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4) 알라스카(에스키모)(인디언)

세계성지문화연구소 중동북아 선교회
World Holy Land History Culture Institution & Mid East North Asia Mission

소장 권해수 선교목사
Chief Rev., Jason H. Kwon

757 E. Main St. W., 212 Lansdale, PA 19446
TEL (267)372-8537 FAX (208)485-1013
Email: jasonkwon777@yahoo.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LA: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 mail: LA@chpress.net

□ 신규 □ 변경 □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_____ 영문: _____
② 교회(기관) 주소	_____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_____ 영문: _____
⑤ 사택 주소	_____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 _____
⑧ Web Add.	http:// _____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_____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세요 ④ 번은 해당사항이 표시를 하세요

한국교회 분열 극복과 통합의 길-연합기구 통합하려면

국민일보에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주요 교단과 단체의 사무총장과 총무, 대표 등 교계 인사 3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가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등과 관련 있는 15개 주요 교단, 다양한 영역에서 사역하는 15개 단체의 인사들을 조사대상으로 했다. 이들 중 29명이 답변을 보내왔으며, 대부분은 한국교회의 진정한 연합을 위한 고언도 함께 전해왔다.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가운데 69%인 20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없다'고 답변한 이가 7명, '모르겠다'며 답변을 유보한 이는 2명이었다.

'필요하다'고 대답한 이들 가운데 40%(8명)는 '한국교회의 공교회성 구현'을 이유로 꼽았다. '사회적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힌 이가 6명, '다종교에 비해 실추된 개신교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답한 이가 4명이었다. 2명은 '한기총의 역사성을 계승해야 한다'를 이유로 들었다. 한국장로회총연합회 최내화 총무는 "정통성을 갖는 연합기관이 한국교회를 리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없다'고 답한 7명은 모두 '진정한 회개와 갱신 없이 통합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조재호 사무처장은 "교단에서 개교회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합기관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자라다툼하는 연합기관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한기독교노사렛성결회 최기

섭 총무는 "한기총은 이미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한교연이 만들어졌다"면서 "다시 합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교회 연합사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복수응답)'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30.5%(18명)가 '한기총의 이단해제 및 영입'을 꼽았다. 공교단에서 이단 또는 이단성이 있다고 결의한 단체와 인물에 대해 한기총이 일방적으로 이단에서 해제하거나 문제했다고 결정함으로써 연합기관의 파행을 가져왔다는 인식이 가장 많은 셈이다. 세계성서화운동본부 김철영 사무총장은 "한국교회의 연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분별한 이단해제"라면서 "연합기관은 공교단의 이단 결의를 존중하고 자체적인 이단해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7.1%(16명)가 '한기총 지도부의 영입 위한 정관 개정 등 진행'을 걸림돌로 꼽았다. 한기총은 지난해 12월 총회에서 대표회장의 임기를 '2년 단임'에서 '2년 연임'으로 개정해 교계 안팎에서 큰 논란을 불러왔다. 한국기독교교회

박영환 총무는 "교권주의와 패거리문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잡는 이들, 도무지 물러서지 못하는 일부 교계 지도자들을 보면서 절망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13명이 '주요 교단들의 이기주의와 통합의지의 부족'을 걸림돌로 꼽았다. 연합기관의 분열에 대한 책임이 교계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주요 교단에도 있다는 의미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사대본) 총무 이상용 목사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대형교단들이 정치적 기득권을 포기하고,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

하는 배려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권주의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걸림돌이라고 답변한 이가 9명, '한교연의 분리와 지도력의 부족'을 지적한 이도 3명 있었다.

연합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급선무에 대해서는 '지도부의 전횡·독단 방지, 민주적 의사결정, 회원교단과 소통 강화'를 꼽은 이가 32.2%(1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27.1%(16명)가 '이단에 대한 공동 대처, 무분별한 이단 해제 및 영입 금지'를 꼽았다.

이밖에 '금권·부정선거와 인

"한기총·한교연 통합 필요하다" 69% "최대 걸림돌은 지도부 전횡·이단 문제"

사·재정비리 척결, 투명한 재정 운영'(9명), '함양 미달 교단 및 무인가 신학교 정비'(6명), '주요 교단 중심으로 조직 건전성 강화'(5명)가 뒤를 이었다. 소수의견으로는 '총무단 모임 등 사조직 해체'라고 답한 이가 3명, '술환한 정관·규칙·제도 등 정비'를 꼽은 이가 1명 있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김진호 총무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며, 무엇보다 교권과 금권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5000여 성도 "회개로 하나되게 하소서"

'2014 한국교회 본질회복 성회' 5천명 참석

지난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은 한국교회의 본질회복을 염원하는 기도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자성과 회개를 위한 통곡 기도가 매시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주여, 주여"를 외치며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다.

'2014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대표대회장 소강석 목사)는 이날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한국교회 본질회복 성회'를 개최했다. 세계성령중합의회(세성협·대표회장 정인찬 목사)가 주관한 이날 성회는 한국교회가 성장을 멈춘 것에 대한 회개와 회복을 촉구하고 새 각오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1부 회개와 성령 충만, 2부 개혁과 회복, 3부 연합과 비전선포로 진행했다.

설교자들은 한국교회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본질회복'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교회를 성령운동과 말씀운동으로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주성민 세계로금관교회 목사는 다의의 삶을 소개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강조했다. 주 목사는 "회개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며 "내 생각, 내 주장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돌아가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강조했다.

권태진 군포제일교회 목사는 '반석 위에 집 짓자'(마16:18-20)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지혜로운 삶은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반석을 벗어 버린 위기를 맞고 있으나 이제 문제의 본질을 알고 말씀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는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에 중요하다고 했다. 소 목사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인데, 왜 우리가 하나를 못 이루고 연합과 일치를 못 이루는 단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한다"고 역설했다.

2014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는 오는 가을 목회자와 신학자, 평신도 지도자, 기독교문화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종교개혁 500인 선언'을 발표한다. 선언문에는 한국교회의 자성과 다짐,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과 다짐다. 또 내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창작오페라를 무대에 올린다. 소 목사는 "한국교회 본질회복을 위한 지역성회를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기독교인 중·고교생 46% 기독교 희망

"종교 바꾼다면..." 종교의식 온라인조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중·고교생 절반 가까이 종교를 갖게 된다면 기독교(개신교)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독교연합신문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월20일부터 2월5일까지 기독교인 500명, 비기독교인 500명 등 중·고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의식에 관한 온라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비기독교 학생들이 종교를 변경하거나 가질 경우 희망하는 종교는 기독교(46.8%)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천주교(25.5%), 불교(19.1%) 순으로 나타났다. 비기독교 학생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로는 '종교를 가질 필요성을 못 느낀다'(36.2%)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믿음이 가지 않는다'(22.3%), '귀찮다·주일마다 출석해야 하기 때문'(14.6%), '종교인에 대한 불신'(8.3%) 등이 뒤를 이었다.

비기독교 학생 중에 과거 회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학생은 57%였다. 회교를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다·바쁘다'(36.7%)와 '믿어지지 않는다'(36.7%)였다. '부모 반대'(6.0%), '귀찮다'(3.9%),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3.3%), '교회가 내게 관심이 없다'(2.6%) 등

의 순이었다.

기독교 학생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로 '구원과 영생'(33.7%), '가족·부모의 권유'(26.1%), '마음의 평안'(23.6%), '건강·재물·성공 등 축복'(7.5%), '친구와의 교제'(5.9%) 등을 꼽았다.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을 묻는 질문에는 어머니(47.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교회전수·선후배(12.0%), 목사·전도사(11.9%), 아버지(9.8%), 학교친구·선후배(5.2%), 교회학교 교사(2.8%), 형제·자매(2.6%) 순으로 조사됐다.

신앙생활에 가장 도움을 주는 요소는 교회예배·목사설교(45.55%)였다. 이어 집회·수련회(19.6%) 교회 내 소그룹 활동 및 모임(12.8%), 신앙선배·친구(10.0%), 신앙성장양육 프로그램(2.7%), 기독교매체·신앙서적(2.4%), 큐티(2.3%), 가정예배(1.8%) 등을 꼽았다.

조사대상 학생들 가운데 현재 삶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43.3%였으며 기독교 학생의 만족도(46.7%)가 비기독교인 학생(43.3%)보다 약간 높았다. 기독교학생들은 음주, 이혼, 혼전성관계, 동성애 같은 윤리 문제에서 비기독교 학생들보다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영훈 한교연 회장 사퇴 공식 요구

예장통합 임원회, "도덕성 추락 책임" 주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임원회가 최근 실정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영훈 대표회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한교연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교단인 예장통합이 한 회장의 퇴진을 거론함에 따라 연합기관과 회원 교단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장통합은 2012년 한국

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에서 탈퇴해 일부 교단과 손잡고 한교연을 설립했다.

예장통합은 30일 서울 노원구 상현교회(최기학 목사)에서 임원회를 열고 연합사업위원회에서 건의한 한 회장에 대한 사퇴 권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한교연 정관 개정요구안을 수속했다고 밝혔다. 임원회는 이

를 공문에 담아 이날 중 한교연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6월12일 한 회장이 총장으로 재직하던 한영신학대학교의 운영비를 재단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한교연은 정관에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대표회장 해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회장 교체 등의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회장 본인도 "이번 일을 거울삼아 남은 임기 동안

안 겸손한 자세로 한국교회를 섬기겠다"고 말해 대표직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이에 예장통합은 지난달 18일 연합사업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도덕성 추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 회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고, 30일 임원회에서 이를 추진한 것이다.

한교연 관계자는 "교단의 공식의견인 만큼 한 회장이 심사숙고한 뒤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단대처위해 노회별 상설기관 설치 필요

예장합동 '구원파 및 이슬람 스쿠르범 대책 긴급세미나'

예장 합동 이단(사이비)피해대책 조사연구위원회는 26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총회회관에서 '구원파 및 이슬람 스쿠르범 대책 긴급 세미나'를 열고 구원파의 교리적 문제를 분석하고 노회별 상설 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창섭 전 총신대 교수는 "구원파라는 명칭은 고 탁명환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이 붙인 이름이라고 전해지지만 1960년대 초부터 '거듭남' '중생의 깨달음'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보편적 명칭으로 알려져 있었

다"면서 "구원파를 대변하는 중요 인물은 권신찬 박옥수 이요한이며 거듭남 체험신앙을 강조하는 길기수와 디옥으로부터 구원의 경험을 얻고 구원파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 전 교수는 "구원파는 자신이 중생했는지를 깨달아야 진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면서 "따라서 구원파는 죄에 대한 지속적 회개를 부정하고, 기존 교회의 구원을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심 전 교수는 이단에 효과

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총회 이단대책연구기관과 연계된 노회별 상설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기성 예드림교회 목사는 "구원파는 엄밀히 따지면 외국 독립선교사들에 의해 유입된 신종교파"라면서 "이들 선교사들은 기성 교회를 반복음적 세력으로 봤으며 체계적 신학공부를 하는 것을 믿음을 버리고 타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박 목사는 "이요한과 박옥수는 자신들이 구원파가 아니라고 하지만 신관, 구원관에 있어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구원파는 기성 교회와 교인들을 공격하는 이단집단인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황인철 남부산교회 목사는 '이슬람의 역사와 스쿠르범의 문제점' 발표에서 "한국에는 9개의 이슬람 사원과 7개의 이슬람센터, 60여개의 기도처가 있다"면서 "막강한 오일 달러를 기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이슬람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교회와 이슬람 대책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장 합동 이단위의 지적에 대해 기쁜소식교회 관계자는 "박옥수 목사가 디옥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교류를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며 한국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백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벨렐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청소년부: 오전 10시, (8월) 오전 11시 유치, 유년교부: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704)529-0900 / 0988(렉스콜롬)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d.org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360)458-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말: 오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cattle.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별: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ljrc.org				
앵커리지영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영리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 (915)755-1490, 사별: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215)422-0288, Fax: (215)424-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새벽예배: 오전 11:00 주일아침예배: 오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54)834-8705, Fax: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영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804)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4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804)560-753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www.josephvision21.org 매일저녁7시(금, 토, 주일) Tel: (410)203-0512, Fax: (410)203-0512 3173 St. Charles Pl,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 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월-토) Tel: (253)535-6207, 531-8424 Fax: (253)539-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명 1부영예배: 오전 9:30 주일새벽예배: 오전 9:30 주일아침예배: 오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53)536-6675, Fax: (253)474-9515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템플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kpcpac.com Tel: (480)726-018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헌신예배: 오후 7:45 수요예배: 오후 8: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한·영)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변하는 아시아와 새로운 선교전략” (6)



노봉린 박사
(ATA International Senior Advisor, Th.D)

3. 복음주의 교회의 선교신학의 이슈: “교회의 최대 사명은 무엇인가?”

세계복음주의협회(WEA)와 로잔위원회(Lausanne Committee)가 공동으로 주최한 “전도와 사회책임의 관계 컨퍼런스”(Consult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vangelism and Social Responsibility)가 1982년 6월19-25일 미시간 주 그랜드 레이크스에서 열렸다. 세계 6대륙에서 선출된 약 50명의 선교학자, 목회자, 신학교수, 부흥사가 모여 전도와 기독교의 사회복음사역의 관계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존 스토틀 박사(Dr. John Stott)가 이 모임을 주관했고 아프리카의 오세이-멘사(Gottfried Osei-Mensah)와 아시아의 노봉린 교수가 공동의장을 맡고 이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 모임의 선교신학 토론의 주제는 “교회의 최대 사명은 무엇인가? 전도인가 혹은 사회사업인가?”였다. 한 그룹은 교회의 최대사명은 전도이며 이 전도 위에 사회사업(고아원, 병원, 양로원 등) 사역을 진행해야 한다고

매 3년마다 열리는 ATA아시아 복음주의 신학자 토론회가 2013년8월12일-15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렸는데 30개국에서 235명 아시아 신학자가 참석하였다. 프로그램의 하나는 필립핀의 국가에서 온 신학자들과 인터뷰하는 시간이었다. 헬트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총장인 김삼복 박사가 질문을 하였는데 요르단에서 온 한 신학자가 중동지역의 기독교인의 수가 매년 감소한다면서 심각한 보고를 하였다. 그는 3개의 이유를 지시하였다.

1) 많은 무슬림 남자가 기독교 여성과 결혼하고 있으며 국법에 의해 자녀들은 이슬람교인이 된다는 것이다. 2) 반면에 기독교 청년은 무슬림여성과 결혼할 수 없으며 만일 결혼한다면 이슬람교로 개종해야 한다고 하였다. 요르단에서는 1/3의 기독교 여성이 무슬림남자와 결혼하였으며 애급에서는 매년 15,000 기독교인이 무슬림이 된다고 하였다. 매년 이러한 혼혈결혼으로 기독교 인구의 감소는

동지역은 이슬람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전 세계의 55개 이슬람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며 필자는 이 지역의 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두개의 제안을 제시한다.

1) 연장신학교육(TEE) 혹은 Distance Education(DE)을 통한 신학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 냉전시대 (1950-1990)에도 공산국가에 있는 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TEE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 연장신학 프로그램은 한 신학교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 지역에 구성된 교회 지도자 소그룹을 찾아가서 성경을 정기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연장교육 교과서를 학생에게 마련해주고 한 잔집에서 자습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학위까지 수여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오늘의 연장신학교육은 수많은 재료(교과서, 인터넷, DVD, 라디오, 스마트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이슬람국의 신학교들은 ATA와 아시아-1 국가에 있는 신학교과 긴밀한 연결을

방지일 칼럼 (45) “본대로 들은 대로” 정박아



태어날 때 어떤 원인인지 정박아로 태어난다면 어버이에게는 한평생 그 아픔이 큰 것은 말로 다 못한다. 서구에는 이런 정박아 장애자의 천국이라고 한다. 때로 가보는데 그러하다. 소경은 들을 수 있음으로 들을 것으로 보지 못함을 보충하게 그런 사실이 갖추어 있다. 듣지 못하는 이는 보는 것으로 듣지 못함을 보충할 수 있다. 전파기에 빛이 오면 전화 온 것을 알게 되고 옆에 팩스라 할런 지 거기 전화내용이 나온다. 그 글을 보고 병어리 귀머거리도 타자를 치면 상대에게 말이 글로 간다 통화가 된다. 보지 못하는 이가 길을 건널 때 소리로 신호를 알게 함은 우리나라에도 장치되어 있다.

스웨덴에 가서 핀란드 가는 배를 탔는데 휠체어에 탄 이들 정박아들이 많이 탔다. 이렇게 그 가족들이 대동하는 줄 알고 가족들이 용하다고 칭찬을 해주었다니 그게 아니라 국가로서 이런 불우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씩 돕는 이가 있어 그 돕는 이는 의무적으로 일년에 몇 번 여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이렇게 나가게 한다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이들 장애자를 책임질 뿐 아니라 그들이 누릴 행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 저들의 행복함을 느끼었다.

이번도 필리핀에서 독일가는 루프트한자 기내에서 내 옆에 중년이 넘어 보이는 내외분이 그의 딸인 모양 덩치로 보아 20이 넘고 30이 가까워 보이는 딸을 데리고 가는데 신을 신겨주고 화장실에 데려가고 먹는 것을 챙겨주고 아이가 보고 놀게 하는 책이 높이감을 지참했다. 때로 아빠가 포옹을 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을 15, 6시간 동승하면서 유심하게 보았다. 어버이의 사랑은 대단하다.

자녀 가운데 정박아가 태어났다. 그 아픔을 어찌 다 측량하라.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대로 모세는 받아 성막의 규례를 여러 기술자에게 언급하여 그대로 만든 것을 본다. 양양의 길이 넓어 널판의 대는 받침이든 널판의 축이든 그 띠는 조각목으로 그것을 금으로 싸게 동태는 금을 쳐서 만들게 법계의 장 광고 그 면적들 체적들이 소상하게 지시되어 그대로 만들게 하였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 교회 성도들 이런 말씀을 바로 받아야 한다. 교회를 도외시하는 사람들은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교회는 비용 들고 무슨 필요나 무교회화자들은 자고로 동서를 막론하고 있기도 하였고 또 현재 있기도 하다. 교회는 시인하면서도 조직은 반대한다. 교직자들 그 큰 이가 있어 자신의 메시지로 족하다. 목사님 오라 그 전달하는 말씀이 좋아서 크게 각광을 들어내는 이가 여러 나라에 있기도 하다. 장로님 집사님 시끄러운 조직이 싫다 함이다. 그런 면이 없지 않기도 하다. 교회 조직에 참여한 것이 어떤 정권이나 잡은 것같이 세도를 부리며 교역자로 자기 수하에 있는 것같이 농장에 소를 사서 버리다가 더 좋은 소로 바꾸는 식으로 교역자 주님의 대행자를 용인하고 착각하는 망령된 이들도 있다. 어떤 교인은 믿기에 교회에 오기도 하나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이나 하던 되지 교회의 한 멤버로 등록도 않고 몰래 왔다가는 식의 교인도 있다. 모든 조직에 참여하면서도 몸으로 봉사함이 없다. 있다면 자기 주장을 세운다. 성가대원 중에 영동한 음을 낸다면 그 화음은 못된다. 그런 교인들 그런 직원들 그런 관철들 그런 시구들도 있다.

나는 이상의 예로 들은 장로든지 목사든지 집사든지 구역장이든지 성가대원이든지 관철이든지 교회학교 반사든지 그 어떤 분야에 관계했든지 그는 정박아에 속한다. 정박아라고 버릴 수는 없다. 그에게 더 정이 가기도 한다. 어떤 국가같이 한 사람 전문적으로 돌보게 해야 하기도 한다. 그렇게 돌보아 줄 수 있는 자는 그대도 괜찮다. 그렇게도 못할 사람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반발이 더욱 심할 사람도 있다. 이는 교직자에게 골치야 끝나면 주신 가시로 알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만족할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때로 나는 정박아는 아닌가, 장애자는 아닌가, 스스로 살림이 있으면 족하겠다. 교회로서는 정박아나 장애자를 도외시해서는 안되고 더욱 정들게 신경을 써 보살피는데 주력할 것이다.

(1999년, 3권)

사회사업 강조하는 서구복음주의교회... 교회의 사명은 전도가 우선 TEE, DE 교육으로 이슬람권 지도자 양성, ATA 등과 긴밀 연결

주장하였다. 또 다른 그룹은 전도와 사회사업은 공동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우선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모임에서 토론되었던 선교신학의 이슈가 오늘 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서양 복음주의교회는 전도보다도 사회사업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Columbia International University(Columbia, SC)의 명예총장인 Robertson McQuilkan 박사가 2010년 10월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모였던 로잔회의 III에 참석 후 오늘의 많은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전도보다도 사회복음에 너무 치우치는 것을 걱정하였다. 그는 잡지 크리스치니티 투데이(2013년 12월)에 “예수 대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이렇게 표현하였다. “오늘의 복음주의교회라는 원안에서 선교신학에 대한 심각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교회의 사명은 근본적으로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놀린 자를 일으켜주는 것인가? 혹은 바울이 가르친 침의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미국 복음주의교회의 제일 중요한 대결이라고 믿는다.”

필자도 McQuilkan 박사가 주장하는 것에 동감이며 교회의 사명은 전도이며 그 위에 사회사업을 이루어야 한다고 믿는다.

17%라고 하였다. 2) 많은 기독교인이 유럽과 북미로 이민을 간다고 하였다. 기독교인 감소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 13.3%(1894년), 7.59%(1945년), 2.25%(2000년).

3) 이슬람국가들은 샤리아법(Sharia Law)을 전 국민에게 적용시켜 기독교인의 종교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기독교인의 자녀는 학교에서는 샤리아법을 존중해야 하며 집에서는 기독교인의 생활을 하는 이중생활을 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결과로, 기독교인의 수는 매년 감소한다고 하였다. 지교회 지도자가 교회에서 사라질 때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무슬림의 핍박과 테러 속에서 생활하는 기독교인을 위하여 전 세계 기독교인은 기도해야 하며 새로운 선교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절실히 느끼게 된다. 아시아-3, 아시아-4 국가의 기독교는 그들의 교회 자체의 존재성에 도전하고 있는 심각성이 아시아-2 국가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역사적으로 이슬람은 7세기에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여 기독교인을 핍박한 것이 21세기 이슬람국가에서 되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 어거스틴(354-430)이 북아프리카(오늘의 튀니지)에서 사역했을 때 북아프리카 지역에 500개가 넘는 노회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북아프리카와 중

및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신학교가 가는 곳에 교회가 따라간다”는 말이 있는데 대단히 적절한 생각이다. 아시아-2, 아시아-3 국가의 신학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다. 중동지역신학협회(Middle East Association of Theological Education)는 이 지역의 4개 국가에 있는 18개 신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MEATE는 과거에 ATA인가와 연결하여 우호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ATA와 아시아-1 국가의 신학교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제공한다.

1. ATA는 이슬람국가에 있는 신학교를 ATA인가를 통해서 도와주었지만 앞으로는 AGST 프로그램을 통해 도와주기를 바란다. AGST는 필리핀, 일본, 동남아시아와 한국에 설치되어 있는데 AGST-중동지역도 창설되어 이 지역에 필요한 교역자 양성도 신학교 수 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 아시아-1 국가에서 신학교육이 발달된 한국,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에서 이슬람 국가의 신학교육을 특별히 연장신학을 통하여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3. 선교단체는 신학교육에 종사할 수 있는 더 많은 선교사를 선출하여 연장신학 자료 제작과 지교회 지도자 양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한시영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1부예배: 오전 7:45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한시영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lafgusa@yahoo.com / www.lafg.com /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1:40 주일5부예배: 오후 12:30 주일6부예배: 오후 2:00(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토) www.youngnak.com / Tel: (213)388-7101, (F1)(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대무반: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토) Tel: (626)691-0691, (F1)(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평일영양예배: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 대무반: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626)691-0691, (F1)(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EM): 오후 1:30 수-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Pasadena, CA 90026 / Lsoltdrock@gmail.com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www.srdcm.com /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10 주일3부예배: 오전 11:10 주일4부예배: 오전 11:45 주일5부예배: 오전 11:45 주일6부예배: 오후 1:1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오후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www.dhpc.org	동문교회 담임목사: 김상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 www.eskpc.org	중앙선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찬양예배: 오전 9:30 3부 영어예배: 오전 11:00 4부 영어예배: 오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466-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서비스 없음),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St., #B L.A., CA 90033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1부예배: 오전 9:30 영어2부예배: 오전 11:30 월-일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St., Pasadena, CA 91106	미중앙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찬양부흥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www.mpcpla.com / Tel: (213)381-2535,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금요예배: 오후 8:00(토) Tel: (310)749-0577, 3521 Lomita Bl., #202-A Torrance CA, 90505 / www.dhpc.org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1부: 오전 7:15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주일예배4부: 오전 11:00(찬양) 상인영양예배: 오전 11:00 대학영양예배: 오후 1:00 대우영양예배: 오후 7:30 Tel: (818)249-2871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세정 주일부흥찬양예배: 오전 9:00 주일부흥대예배: 오전 11:15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Tel: (626)339-6177, 1067 E. Baillio St., Covina, CA 91724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EM): 오전 11:00 수-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Acts 1:8(목회): 오전 6:30(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토) www.samsungchurch.org / Tel: (626)690-9800, Fax: (626)690-8044, 501 S. Lido St., Pasadena, CA 90631	새찬양교회 담임목사: 변윤선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www.newpraisechurch.org / ysbony@gmail.com / Tel: (714)826-0100, Cell: (714)844-3177, 6269 Ball Rd., Cypress, CA 90630	새생명선교회 담임목사: 김만수 영어1부예배: 오전 9:30 영어2부예배: 오전 11:00 영어3부예배: 오후 7:00(금) 새벽기도회: 오전 2:00(월-토) 금요영양예배: 오후 8:00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 Tel: (818)952-2449, 13005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Sate: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안다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용성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수-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토) Tel: (818)249-2871 / Fax: (818)249-0516,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 www.lhpc.org	얼바인침체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ircinechurch.com /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96-4400, Fax: (718)896-0074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성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일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00(찬양) 주일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영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은혜사제기도회: 2659 24시간 온로 www.gracemc.com /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 www.gjcc.org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rstone.net / e-mail: pastor@cornerstone.com /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93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5:30(찬양) 영어부흥: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4:00 www.torrencecc.org /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96-4400, Fax: (718)896-0074

선교 펴기 헝가리 부다페스트

선교, 감동의 빛 메아리(light echo)~

빛에도 메아리가 있다고 합니다. 산울림, 파문, 물수제비, 공명처럼... 사람에게도 메아리가 있다면, 제겐 저보다 90살 많은 퀴리부인을 떠올립니다. 세계사, 국사, 개인의 한 생애... 그것은 삶과 죽음, 전쟁과 평화, 기쁨과 슬픔인가요? "퀴리부인"이 태어난 해인 1867년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였네요. 올해는 세계

1차 대전(1914.7.28-1918.11.11)이 일어난 지 꼭 100년 되는 헝가리와 국경을 접한 나라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우려와 불안을 낳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금세 알게 된 지금... 목욕하 8톤이나 되는 광석 "피치블렌드"를 부수고, 끓여서 녹인 다음, 접시에 담아, 기다리는... 그렇게 "라뎀"이라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빛을 찾아내기까지 살아온 그녀를 그려봅니다.

67세 돌아가시기까지 그녀의 일생은 조국 폴란드가 러시아의 지배를 받는 환경이었고, 9살 때 언니가 죽고, 1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7살 때부터 가정교사 일을 했습니다. 28살에 결혼한 그녀는 36살에 남편과 함께 노벨물

리학상을 받지만 39살에 남편과 사별합니다. 그 슬픔을 이겨내고 44살에 다시 한번 노벨화학상을 받고,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자 'X선 진료실'



을 만들어 부상병들의 몸에 박힌 파편을 찾아내어 진료해줍니다. 인류에 공헌한 그녀는 오랫동안 씩씩한 라뎀 방사선에 의한 악성 빈혈증으로 일생을 마칩니다. 그

해 그녀의 딸 이렌은 남편 졸리오와 함께 '인공 방사능'으로 노벨화학상을 받았구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무엇이 행복일까요? 저희가 급식 뱅을 물고 "거리의 교회"로, 또 "집사가 정교회"로 가면서 쉼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사람 메아리...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점점 멀리 퀴리부인, 링컨 대통령, 바울 사도... 지혜로운 에스더, 다윗, 모세, 아담과 이브까지... 성경에 나오는 이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

저는 이 동요가 좋습니다. 강렬한 섬광의 빛 메아리도 있지만, 이런 아가자기한 것도... "풍당풍당 돌을 던져라~ 누나

몰래 돌을 던져라~ 냇물이 퍼져라 멀리멀리 퍼져라~

시냇가에 앉아서 나물을 씻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질여 주여라~

집시 동네 사역나갈 시간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이 서린 그들 얼굴에, 미소를 번지게 하는, 저도 한 울림 이고 싶습니다. 감동의 여운을 퍼지게하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아리로...

헝가리 흥부선교사네, 김흥근 & 서명희 드림

홈페이지: http://hungary.cafe24.com

볼리비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요 6:39).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볼리비아 라파즈의 형제자매를 사랑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감사와 소식을 전합니다(4-6월).

1. 바자회
4월 첫째 주에 교회 재정 총당과 교인들의 단합을 위해 음식 바자회를 하였습니다. 여태껏 키워온 돼지 한 마리를 바자회에 기증하고 열심히 수고는 하였지만 제대로 이익은 얼마 남기지를 못했지만 좋은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2. 어린이날 행사
컴패션과 함께 300명의 어린이들을 교육하며 말씀을 가르치기에

어린이날(4월12일)은 저희들에게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교사들과 함께 연극과 무용, 판토마임을 하고 어린이들과 게임들을 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고, 동물원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만드신 동물들을 보았습니다.

3. 부활절 행사
4월 14일부터 19일 고난주간 특별행사로 매일 저녁 성화를 보고, 특별기도회를 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이 부활절전날 모여 부활절계란의 의미를 배우고 계란에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을 그림으로 그리고 부활주일에 교인들과 이웃주민들에게 전달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4. 전교인 야외예배
모처럼 교인들과 5월1일에 야외 예배를 하나님께 주신 선교동산으로 갔습니다. 특별한 문화 행사가 없기에 축구공 하나도 하루를 보냈지만 먹는 즐거움이 더해져 감사한 하루였는데 저희 자동차 라지에도 펌퍼가 뿌려져 엔진

에 열을 받아 보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한달 이상 자동차가 없어 공중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주일 저녁예배나 수요일에 배 후에는 마을에 들어오는 버스가 끊어져 한참을 걸어야 하기에 4100m 고산의 추위가 온몸을 파고듭니다.

5. 지도자 세미나
귀한 시간을 내어 볼리비아 라파즈를 방문하신 유상섭 목사님과 민남기 목사님을 모시고 5월22일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지역 특성 상 목요일이라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지만, 청소년지도자들과 대표들이 참석하여 많은 성경과 신학적 공금증, 전도방법에 대해 열심히 배웠습니다.

5. 어머니날 행사
어머니의 날을 맞아 5월25일 행사를 교인들과 학부모, 자모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노래와 율동, 연극과 판토마임을 준비하고 부모님들을 초청하

여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고슴도치도 자기의 자식은 이쁘다고 하듯이 우리가 보기에는 서툴고 정신없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보내고 후원해주는 교회와 하나님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교인들이 초코렛차와 빵을 만들어 나누어주고, 교인들에게 장미꽃과 예쁜 컵을 선물하는데, 준비한꽃이 떨어져 교회 집사들의 꽃을 다시 받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6. 목회자 교육
6월 2-4일 라파즈 지역교회 목사들과 리드들이 모여 교회의 발전과 어린이 사역에 관한 회의들을 나누고 점성으로 이 나라 감자와 옥수수들로 배를 채우는 시간들이었는데 감밤을 준비해 선물하였습니다.

7. 볼리비아 알토지역 운전사들의 행진과 마을 사람들과의 총틀
6월 2일부터 7일까지 볼리비아 알토지역 운전사들이 요금인상을 위해 데모를 하여 버스 없는 조용

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볼리비아는 데모를 하면 꼭 길들을 막아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일반인들은 운전할 하면 자동차를 불태우기도 하고 창문 유리를 부수기도 하고 운전자를 폭행하기도 하기에 감히 자동차 운행을 할 생각을 못합니다. 일주일 버스 없이 도로로 자전거로 출퇴근한 시민들이 참다 못해 운전사들을 항의하여 몇 데모를 하여 운전사들과 시민들의 충돌로 혼란스러웠는데, 한달 잠정적으로 운전기사들의 데모는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8. 금식기도
교회 지도자들과 집사들이 모여 나라와 교회, 교인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21일 아이마라 설날이 있고, 점점 전통종교가 왕성해가고 있고, 산발적으로 데모가 벌어지고, 교회 한 자매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토끼같이 여러 명을 낳았다고 구박하여 젖이 잘 나오지 않아 쌍둥이 막내가 허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 자매는 남편이 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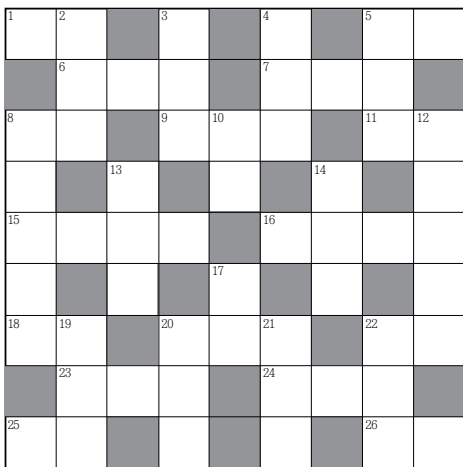
먹기 위해 가스통을 팔아 식사 준비할 수가 없어 3일째 아이들과 함께 먹지 못하고 있어서 급한 대로 교회식당에서 남은 음식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기도제목
1. 볼리비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2. 집사들과 지도자들이 주님께 더 헌신되어 총성할 수 있도록
3. 문서사역과 방송사역이 활성화되어 복음의 파수꾼과 니키피수가 되도록
4. 세워진 교회들이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5. 이견화, 김성제 선교사가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6. 단기선교팀을 통해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도전받을 수 있도록

볼리비아 고산 평화의 도시에서 이견화, 김성제 선교사 드림

십자말 • Cross Word (43)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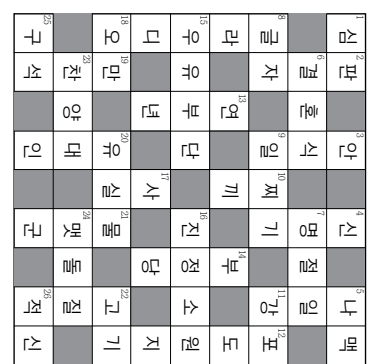
<가로 푸는 열쇠>

- 저를 믿는 자는 OO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요3:18).
- 쌀 보리(창9:32).
- 신랑 신부 입성! ~판파다다~
- 명일날(창9:5).
- 말을 적는 부호(창32:15).
- 늦지 않게. 이르게(창19:2).
- 완강하고 포악함(잠16:29).
- 어물어물하기만 하고 딱 잘라 결단을 하지 못함(고사성어).
- 찬송가511장 "내 OOOO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사랑"
- 태도가 거만함(삼상2:3).
- 잃어버린 물건(fp6:4).
- 온갖 동물의 살(창1:26).
- 예배때 마다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그룹.
- 곡식을 갈아서 가루를 만드는 일(레12:3).
-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곳(사19:18).
- 벌거벗은 몸. 알몸(렘1:21).

<세로 푸는 열쇠>

- 시비 곡절을 결정 짓는 자(요9:33).
-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휴일로 삼고 거룩히 지키는 날(레23:15).
- 모세5겨울 다섯 번째 책.
- 애굽의 젓줄. 최대의 강(시19:7).
- 로마 제4대 황제로 유약 무능함(행18:2).
- 역세 속에 가라앉아 처져 남은 물건(시75:8).
- 포도밭을 지키는 사람(사27:3).
- 해마다(삼하21:1).
- 정당하지 아니함(출23:2).
- 실지의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는 일(레 6:2).
- 저녁식사를 배분 자리(요21:20).
- 주이시. 예수님도(요10:19).
- 볼때로 때리는 사람(왕하3:25).
- 오랫동안 앓고 있어 고치기 어려운, 또는 그런 것(명사).

십자말 정답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397-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397-6754-5 군포시 금곡동 870-5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리기도회: 오후 9:00 Tel. (82)523-9419, Fax. (82)522-4834 500-170 경교역사리 북구 관음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82)3208-8491-5, Fax. (82)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예배: 오후 9:00 Tel. (82)917-8383-9, Fax. (82)91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흥인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3670(교우실) VIA DEI QUINTILI 32-39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30-5, (134-830)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월요일은 휴무한 예배) 대표전화: (82)896-1000, 팩스: (82)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주일4부예배: 오전 6:30 Tel. (82)2-842-1968, 사택: (82)2-842-1968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www.seongsil.or.kr Tel. (82)2-998-0988, Fax. 3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342-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5:30 새벽기도: 오전 5:30 (토요일은 쉼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6호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전 11: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등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82)732-2341~3, 사택: (8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구 신사동 137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82)1253-1004, Fax. (82)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사택: (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5:00/6:00 Tel. (82)418-0481, Fax. (82)422-0751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172 29(삼일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86-6579, 사택: (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리기도회: 오후 8:30 서울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82)32-5500, Fax. (82)32-5510 (841-370)경남 창원시 양곡읍 양곡로 415 www.yangkoc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리기도회: 오후 9: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4: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82)942-6881, Fax. (8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중증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1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5:3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3275-9191, Fax. (82)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63)

6. 교회교육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정신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오늘은 한인교회교육의 커리큘럼의 문제와 타계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양질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넓은 의미의 커리큘럼의 개념을 바탕으로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것이 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커리큘럼이 한인교회에 부재하다면, 우선 그 원인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역시 “그와 같은 커리큘럼이 우리 교회교육에 존재해야 한다”는 인식의 부재일 것입니다. 더러는 담임 목회자의 연간 목회계획에 맞추어 교육내용들을 수립하기도 하고, 간혹 보다 장기적인 교육기획들을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 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성

행하는 것은 마치 도전이 많은 기나긴 항해를 해나가야 하는 항해자가 정확한 지도 없이, 정확한 목적지와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도 없이, 그저 자신의 감으로 혹은 예전의 기억에 의지해서, 그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운전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정확한 지도, 유용한 나침반, 적재적소에 세워진 이정표들, 목적지와 이동경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어렵고 긴 여정을 항해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인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형성 및 영적성장을 위한 교육이라는 길고 험한 여정의 항해에서, 이를 위한 지도, 나침반, 정보들이 되어주는 커리큘럼이란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래야 길을 잃지 않고 순항할

양한 분야들, 그리고 설교를 위한 여러 가지 지식 및 실천들에 대해 익히고 배우지만, 기독교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배우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고, 더욱이 “커리큘럼 수립 및 평가” 등에 대한 것을 배우고 익히는 기회가 거의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스스로 수학하지 않는 한 사역자들이 실제로 그 사역의 첫걸음을 시작할 때부터 커리큘럼에 대한 인식을 물론이거니와 이에 대한 그리고 이를 수립하기 위한 지식과, 이를 토대로 한 현장 실천의 경험 등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한 듯합니다. 이에 이제라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실제적인 실천을 위해 스스로 학습하거나 혹은 더 좋게는 개 교회별로 또는 지역교회연합 단위로 전문가를 모시고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커리큘럼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생산

커리큘럼은 행해 시 지도, 나침반, 이정표, 목적지/이동경로 정보 역 커리큘럼 부재원인: 인식 부재, 지식 부족, 담당사역자의 연속성 부재

도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교육을 행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이 한인교회들의 현실인 듯합니다. 이는 한인교회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교육해야 할 일련의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교육내용들을 생산하고, 언제 그 교육내용들을 가르칠지를 계획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무엇을 은연중에 가르칠 지에 대해 명확한 상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들을 그리 진지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 개교회의 사회적 상황과 신앙수준 현황에 따라 다양한 교육의 내용들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참을 할 수는 있어도 남들이 세워 놓은 교육과정을 그대로 옮겨올 수도 없으므로,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요. 게다가 교회학교들에서 미국 교단들에서 나온 질 좋고 내용 좋은 기존의 교재들을 가지고 교육해도 그런대로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옳지 않은 일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의 커리큘럼이 우리 자녀들과 성인신도들에게 양질의 신앙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의 신앙여정을 바르게 인도하고 돕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커리큘럼 없이 신앙교육을

수 있으며, 혹은 간혹 길을 잃더라도 다시금 길을 잡아 항해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한인교회사역자들의 커리큘럼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담당 사역자와 담임목사에게 그리고 교육담당인력들에게 설명 커리큘럼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생겨서 그 일을 실행하고자 해도, 실제로 어떻게 해야 커리큘럼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이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회자들에게 커리큘럼 계획 및 수립이라는 것은 매우 낯선 실천일 것입니다. 사실 커리큘럼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이전까지 제대로 경험해 본 일이 없으니 커리큘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형태의 것인지, 그 실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도통 감이 없을 것이며, 따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지 잘 모를 것입니다. 게다가 보다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교회의 교육 커리큘럼을 수립하는 당사자들인 목회자들의 신학교 커리큘럼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커리큘럼 수립 및 평가에 대한 교육내용이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역자들은 신학교에서 성경, 신학 및 교리, 역사, 목회 실천과 관련된 다

하는 일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담당사역자의 연속성 부재와도 관련이 있을 듯합니다. 한인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교육 사역의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각 부서 사역자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로 유학은 신학생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명인지라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역자가 열의를 갖고 담당부서의 교육목회계획을 세우고 실행할지라도 사역자가 바뀔 때마다 교육의 내용 및 강조점이 달라지니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내용 및 이에 대한 계획을 갖고 교육하기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라도 더욱 더 커리큘럼이 공고히 세워지고 교회 안에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부서의 사역자들이 바뀌어도 전체적인 교육의 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담임목사와 교육부가 주축이 되어 큰 밑그림을 그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사역자는 이를 토대로 교육을 행하되 필요한 부분에서 선택과 강조의 모미를 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게속)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월 세계의 왕이신 주님(막15:1-15)찬138장

빌라도 심문을 받으신 그리스도는 세상의 참 왕이심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첫째, 자신이 친히 주장하셨습니까. 유대인의 왕은 세계의 왕이며 하나님나라 왕이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2). 빌라도의 질문은 죄를 찾기 위한 접근이지만 주님은 자신의 하나님임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를 거짓말쟁이로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믿든지 택일만이 있을 뿐입니다. 둘째, 유대인의 수많은 고소를 아시면서도 침묵으로 왕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5). 그

는 침묵으로 책임지는 왕의 권위를 주장하셨고 그들의 죄를 책임지는 제물로서의 제사장적 침묵을 가지셨고 그리고 무인중에 진리를 선포하신 선지자셨습니다. 셋째, 빌라도의 죄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성이 강했습니다(15). 목적은 유대인의 만족을 주는 것이나 실상은 자기명예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야망을 유혹한 사탄의 목표와 동일했습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주를 따를 수 있습니다.

화 인자의 강림(막15:1-62)찬162장

본문은 재림의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첫째, 자신의 인자되심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단 7:13의 예언대로 “인자 같은 이”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인자가 바로 자신이란 주장으로 또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는 인자와의 관계로 좌우됩니다. 둘째, 하늘 우편에 앉을 심판주로 나타나셨습니다. 인자는 구속의 완성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으로 이루셨고 자기 백성의 지위를 올리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모든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이 구속은 인자의 재림으로 성취됩니다. 재림으로 최고의 승귀를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인자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 후에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합니다.

수 부활중인(막16:1-15)찬150장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사함의 근거라면 부활은 새생활의 근거이고 승천은 승리생활의 근거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우리로 복음의 삶을 살게 하려고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승천직전 교회에 부탁하신 주님의 명령은 복음증거였습니다. 첫째, 복음은 그리스도이고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의 주제와 중심이 예수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삶을 보이는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입술로 그 복음을 말하며 전해야

합니다. 둘째, 대상은 만민입니다. 260개국 미전도 종족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할 이유는 복음이 절대적이고 긴급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전파해야 합니다. 이는 설교를 가리키며 이것은 교회의 중심사역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사역에 집중하라는 말도 됩니다. 복음의 주인되신 그분을 천하에 증거하기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립시다.

목 엘리야의 심정(눅1:1-17)찬353장

본문은 세례요한을 어떻게 말합니까? 첫째, 거스리는 자를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을 갖기 전에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17). 엘리야 심정이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믿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갈멜산 원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던 마음, 사르밧 과부의 가난을 책임지는 심자가 지는 마음이었습니다. 둘째, 죽은 시체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문재

를 대신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능력입니다. 심자가 지는 심정 위에 능력이 임합니다. 셋째, 죽기를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그 분만을 의지하는 마음에 위로부터 지혜가 생깁니다. 회복과 성결을 추구하는 그 지혜만이 사명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슴같이 높은 곳을 다니는 뉘는 능력은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금 참사람이신 예수(눅1:1-40)찬94장

눅2:40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첫째, 아기로 성장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유아기 성장을 예리하게 설명합니다. 찬114가사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란 가사는 그의 신성에 무게를 둔 표현이지만 본 구절은 사람처럼 배고프면 우시고, 더우면 시원한 것을 찾으시고, 추우면 덮어야 되며 찌르면 고통을 느끼시는 우리 같은 육체를 가지심을 생각해봅니다. 그 이유는 그는 아담처럼 참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입

니다. 그래야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속죄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은 그의 소년시절 성장과정을 간단히 기록하기를 1)그는 육체적 건강이 있었고 2)지혜가 충족했고 3)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심자가 지시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이란 뜻입니다. 죄의 성격, 영향, 그 사망의 맛을 아셨고 모든 유혹의 극치를 다 아셨으나 죄를 범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시다.

토 회복의 은혜(눅5:1-8)찬172장

눅5:8은 회복의 은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째, 실패와 기적 속에서 자신이 무력한 죄인임을 아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실패 속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은 기본적인 은혜입니다. 둘째, 자기가 따르던 주님이 하나님임을 알았을 때 앞을 두려워했습니다. 회복은 언제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람을 취하라는 사명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후 생긴 교만한 마음보다 평범한 삶 속에 생긴

겸손한 마음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성공해 자기 자랑하는 것보다 실패 속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더 귀합니다. 베드로의 순종을 통한 기적체험도 귀하나 기적이후에 더 겸손해짐과 본래의 사명을 확인받음이 더 아름답습니다. 기적체험이나 승리와 성공 후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며 자아를 부인하는 마음은 성령이 친히 일하신 증거입니다. 이 회복의 길로 나아갑시다.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날짜 2014년 6월 24일(화, 저녁)
~ 7월 8일(화, 저녁)

시간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장소 미주 갈멜산기도원 본당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문의 (213) 382-1450 www.galmelsan.or.kr

나성 동산교회 부흥성회

강사 조성근 목사(갈멜산금식기도원 담임)

날짜 2014년 6월 26일(목, 저녁)
~ 29일(주일, 오전 11:00)

시간 저녁 7:30, 새벽 5:30

장소 나성 동산교회(담임 한기형 감독)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문의 (213) 487-3920

우크라이나 이야기들 (8)



오금옥 선교사
(조지아 롬한인교회)

2004년 오렌지시민혁명으로 민주정부가 들어섰지만 무능한 국정운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다시 강대국들의 이익을 위해 내전의 기로에 서있는 우크라이나, 수세기에 달하는 환란을 극복하며 오늘날 독립을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어낸 이 나라 국민들의 역량이 여지

이니 푸틴 대통령의 아버지 이름도 블라디미르입니다. 키예프의 젊은 여성들은 아주 날씬하고 예쁩니다. 웬만한 여성은 모델 같고 배우 같지요. 필자가 머문 숙소에도 캐나다에서 결혼 상대를 찾으러 온 한국인 동포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외모에 다

연결되는 거리로는 셰프첸코(시인), 레사 우크라이카(여류시인), 이반 프란코(작가, 시인, 극작가, 평론가), 삭사간스키(우크라이나 극작가, 시인), 톨스토이, 푸슈킨, 고골리 등의 거리입니다. 생소한 문인들의 이름이 붙은 거리도 있는데, 문인을 존경하고 사랑하여 거리의 이름으로 남겨 영원히 기억하려는 것이라고 김석원 교수는 말합니다. 1991년 우크라이나 독립 전에는 혁명광장, 레닌대로, 스탈린로, 10월혁명로, 승리거리, 붉은군대거리 등 사회주의 혁명과 관련된 거리 이름이 많았으나 독립 후 이들 거리의 이름들은 거의 모두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부모들의 교육 열정이 대단합니다. 집안의 모든 경제수단을 동원해 자식을 대학에 보내려고 합니다. 어수선한 나라에서 신분 수직상승의 가장 빠른 길이 교육이라는 것을 오래 전부터 부모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소련방 시절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국가가 직장

독립 전 사회주의혁명 관련 이름들, 시인 작가 거리로 바뀌어
개신교 중 침례교단, 공산권 70년간 지하교회에서 박해 이겨

펼쳐 나갈지 주시됩니다. 과거 소련을 잘 모르는 젊은이들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 풍요의 땅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추구하는 경향이지요.

아름답고 고풍스런 건물들과 자유의 여인상이 높이 세워진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마인단 광장에 2013년 11월 시위가 시작되어 2014년 2월 18일 독립광장에서 무력 충돌했습니다. EU가입을 포기하고 러시아와 우호조약을 맺는 것에 반대하는 유로 마인단시위대(친서방 측 키예프 주민들)의 격렬한 시위에 강경진압을 하던 야누코비치는 민심을 거스릅니다. 그 사이 서로 총을 쏘는 사태로 확대되어 의회에서는 야누코비치를 해임시키고 임시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의회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사용되는 러시아어를 공용어에서 퇴출시킵니다.

주민들을 동원해 동부 도시에 혼란을 부추기어 어쩌면 동서로 분단될 가능성도 있지만 공업도시 동부는 부유하고 농업을 주로 하는 서부는 가난하기에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구소련 시절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생산기지였고 독립당시 100만 명의 군대가 쓸 수 있는 전략비밀자가 있었다는데 우크라이나가 혼란기에 수백만명의 소총 등이 유출되어 중동지역에서 대부분 테러에 널리 쓰인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동유럽 사람들의 정식 이름은 성, 이름, 부칭(아버지 이름에 보통 '비치'를 붙인다)의 순서입니다. '푸슈킨 알렉산데르 세르게예비치' 하면 푸슈킨이 성, 알렉산데르가 이름, 세르게예비치가 부칭이래요. 보통 친한 사이에는 약칭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이 너무 길어 다 부르기 어려운 탓도 있었지요. 블라디미르는 발로자, 세르게이는 세료자, 알렉산데르는 사샤, 니콜라이는 콜라 등이 약칭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의 이름은 푸틴(성), 블라디미르(이름), 블라디미르비치(부칭)



우크라이나 현지 선교사, 교수들과 함께 신학교를 방문했다. 앞줄 가운데 앉은 이가 오금옥 선교사.

놀라고 압도당합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면 웬지 똥똥해집니다. 만나본 나이든 부인들은 한결같이 에스(S)자가 아닌 일(1)자형입니다.

지난날 온갖 외세의 지배로 남자들은 죽음을 당했지만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온갖 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술은 보통 40도의 보드카나, 집에서 만든 사마곤이라는 술은 50도의 독주입니다. 추운 기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알코올 중독은 이 나라의 큰 문제로 선교적 면에서도 세심한 돌봄이 있어 보입니다. 남자도 술을 잘 마시지만 여성들도 술을 잘 마시고 춤을 좋아합니다. 졸업식후 오락시간에 노래하며 춤추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감탄이 나오더이다.

키예프에는 유난히 시인 작가의 거리가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작가뿐만 아니라 러시아 및 동유럽 작가들의 이름이 붙은 거리도 있습니다. 키예프에서 가장 크고 변화한 거리는 크레샤지(세레, 집 레라는 뜻) 대로(大路)이고 크레샤지과

을 지정해주었지만 요즘은 대학을 졸업해 국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사업을 하여 돈을 잘 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답니다. 구 소련 시절부터 1995년까지 모든 대학의 합격생은 학비는 없고 국가장학금을 받았으나 지금은 대학예산상 합격생의 받은 장학생으로 받은 학비를 내

는 입학생으로 선발을 합니다. 러시아정교회, 우크라이나정교회, 카톨릭 등 슬라브 기독교가 천년을 지켜오고 있는 이 나라에 개신교의 대표적인 교파는 70년간 지하교회에서 박해를 이겨온 침례교단입니다. 키예프에서 3시간 걸려 방문한 침례교회의 예배는 2시간이 가짜워 오는데도 뜨겁고 진지한 모습으로 말씀을 잘 듣고 열정으로 찬양합니다. 그리스정교회 복장처럼 좀 긴 치마에 머리를 스카프로 두른 여인들의 모습은 경건했습니다.

반갑게 맞이하며 친절하고 따뜻한 우크라이나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선교지에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 선한 생각으로 씨앗을 뿌려놓으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거라 믿으며 한국과 비슷하게 아픈 역사가 많고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의 평강을 기도합니다.

이메일: rome8700@hanmail.net <끝>

지나친 집중 지나친 분할

스몰그룹닷컴, 윌로우크릭 소그룹 사역책임
도나휴, 로빈슨의 진단과 제안 제시

교회에서 소그룹사역을 접목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소그룹 리더를 세우는데 있다. 이는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에 실패하면 소그룹 사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증상이 나타난다. 소그룹 사역을 맡은 리더나 그 사역을 조율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임무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없거나, 자원봉사자들이 좌절감을 느끼거나, 소그룹 코치들과 리더들이 자기들을 좀 돌봐달라는 불평을 하기 시작한다. 또는 한 교회 내에서 여러 형태의 소그룹들이 등장하거나, 소그룹 사역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 둘 중 하나다. 하나는 지나치게 리더십을 집중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반대로 지나치게 리더십을 분할했기 때문이라고 윌로우크릭협회의 소그룹 사역 총책임자인 빌 도나휴와 윌로크릭 커뮤니티 교회의 소그룹 사역 총책임자였으며 현재 매도브룩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러스 로빈슨은 자신들의 책 "소그룹 사역을 망치는 7가지 실수(The Seven Deadly Sins of Small Group Ministry)"에서 그 이유를 진단한다.

- 1. 지나친 집중 : 혹사
- 2. 지나친 분할 : 갈팡질팡

소그룹 리더로 세워진 사람이 이미 교회의 다른 여러 가지 사역에 결부되어있거나, 어떤 부서의 크고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교회에 직원을 더 고용할 여력이 없다. 몇 안 되는 평신도 리더들 외에는 믿음만한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한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소그룹 사역에 기존에 다른 사역을 잘해왔던 믿음직한 일

이는 교회의 리더가 소그룹 사역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이끌지 않고 기존에 있던 각 부서에게 소그룹 사역을 진행해 가도록 했을 때 생기는 문제이다. 비전을 제시할 뿐, 각 사역 안에서 소그룹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모든 직원들과 봉사자들의 몫으로 맡겨 버리게 되면 결국 사사기의 이스라엘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

중복된 사역은 혹사...우선순위 따라 다른 사역은 실패
리더가 주도권 갖지 않을 때 여러 모델 등장으로 갈팡질팡

꾼의 사역에 추가해야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믿음직한 사람에게 그 사역을 맡겼으니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그룹 건설의 추진력이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너무 많은 일에 짓눌리면 결국 가지고 있던 열정이 서서히 빠져 나갈 수밖에 없다.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 중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따지게 되고, 우선순위가 있다고 판단한 쪽에 집중하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만약 고등부 부장을 맡고 있는 집사에게 다시 소그룹 리더를 맡긴다면, 새롭게 맡은 소그룹의 소수의 사람들보다 고등부의 수심 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는 그들이 헌신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소그룹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귀중한 헌신된 평신도 한 명을 오히려 잃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처음에는 충성된 성도라고 생각해 일을 하나 더 맡겼는데, 결국 그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 때문에 교회의 리더들은 그에게 실망감을 표현하게 된다면, 결국 그에게 상처만을 안길 뿐이다.

게 된다.

각 부서가 소그룹 생활, 리더십 선택 및 훈련, 영적 개발에 각자의 접근법을 택하게 되면 한 사역에서 다른 사역으로 이동하는 자원봉사자는 새로운 부서에서 봉사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것을 배워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결국 한 교회 내에 각 사역리더들의 편견을 반영하는 여러 종류의 소그룹 모델들이 등장하게 된다. 결국 각 부서의 이기주의와 경쟁심리가 나타나고, 교회가 힘을 합쳐 한 목표를 향하여 움직일 수가 없게 된다. 이런 교회에서는 결국 소그룹 사역에 대한 회의가 나타나고, 사역 자체를 포기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

이처럼 소그룹 리더십을 어떤 사람의 기존 업무에 추가해 혹사시키거나, 기존의 조직들이 알아서 감당하도록 만든다면 정말 심각한 결과에 이른다. 은사와 소명이 있는 평신도로 하여금 소그룹 리더십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역에 개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를 세워 그 사역을 맡길 때는 반드시 적절히 통제하고 명쾌한 가이드를 제공해 교회에 속한 모든 소그룹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5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 2015년 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4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4년 9월 30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유 료 광 고 안 내	돌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15.5 × 2.8cm		\$250.00		
전면 1/8	7.7cm × 5.8cm			
	7.7cm × 5.8cm			
돌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무 료 리 스 팅 신 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시십시오.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